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located in the top left corner. It features a circular emblem with a stylized flame or 'J' shape in the center, surrounded by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and 'JEJU 1952'.

碩士學位論文

# 필리피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시간, 공간, 신체접촉, 시선접촉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李 永 敏

2011年 12月



# 필리피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 시간, 공간, 신체접촉, 시선접촉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邊 明 燮

李 永 敏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 年 12 月

李永敏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 年 12 月



# Philippine Nonverbal Communication

- Focused on Chronemics, Proxemics, Haptics, and Eye-contact -

Young-Min Lee

(Supervised by Professor Myung-Sup B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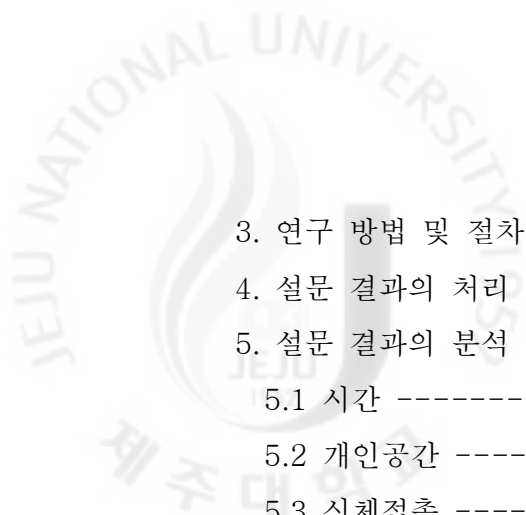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cember, 2011

Department of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 연구	4
3. 연구의 제한점	9
4. 논문의 구성	10
II. 이론적 배경	11
1. 필리핀	11
1.1 개요	11
1.2 필리핀의 역사	11
1.3 필리핀의 언어	12
1.4 필리핀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전 이해	13
2.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17
3. 문화유형의 분류	19
3.1 Hall : 저맥락 대 고맥락	20
3.2 Hofstede : 5차원 문화유형	22
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25
5.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27
5.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지지 기능	27
5.2 감정전달	28
5.3 밀접성의 시사	28
III. 연구방법과 분석	30
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30
1.1 시간	31
1.2 신체언어	33
1.3 공간	40
1.4 신체특징	43
1.5 유사언어	45
2. 연구문제	46



3. 연구 방법 및 절차 -----	47
4. 설문 결과의 처리 -----	49
5. 설문 결과의 분석 -----	50
5.1 시간 -----	50
5.2 개인공간 -----	53
5.3 신체접촉 -----	59
5.4 시선접촉 -----	64
IV. 결론 및 제언 -----	65
1. 결론 -----	65
2. 제언 -----	73
참고문헌 -----	75
설문지 -----	78
Abstract -----	84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쓰거나 말하는 것에 관련되지 않은 의미전달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어떤 언어의 구조적,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 언어의 고유한 문화적 측면을 알 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듯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또한 의식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언어적 행위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많은 비언어적 행위들은 그러한 보편성 없이 각각의 고유한 문화에 기반을 두고 전승, 학습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진정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에 기반을 둔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각각의 문화에 대한 특성을 규정하고 그 문화와 상관관계를 갖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들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했다. 하지만 많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각 문화권의 시대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실험에 의한 자료이기보다는 기존의 오래된 이론적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서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그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계량화된 실험적 자료 또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이 110만 명을 넘어 한국은 이미 단일민족의 영역을 넘어 여러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매스미디어, 유학, 그리고 여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동양인이면서도 서구화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의 다른 문화들

과 그리고 서구의 문화들과 만나고 있으며, 생활환경이 달라지고 있듯이 타 문화들 역시 똑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화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새로운 연구는 필수적이며 기존의 주장들에 대한 검증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다.

Mehrabian & Ferris(1967) 그리고 Mehrabian & Wiener(1967)는 매일의 의사소통에서 의미전달의 55%가 얼굴 표정으로, 38%가 유사언어로, 7%가 언어 그 자체에 의해 전달된다고 했다(Rogers et al. 1999: 162).

이러한 비언어적 행위들이 전 세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도 있지만 대다수의 행위들이 문화와 강력하게 연결된 행위들이어서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 행위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다.

Samovar et al.(1991: 176-177)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
- (2)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감정적, 정서적 상태를 안다.
- (3) 첫인상을 만들어낸다.
- (4) 문화와 강력한 관계를 갖는다.

문화 간에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표현방식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에서 상대 문화의 비언어적 행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부부사이거나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한 타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상사가 전달하는 비언어적 행위의 지시가 가지는 내포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점점 증가하는 이민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 거주자들에 의해 다문화 국가의 양상이 더욱 더 커지고 있으며 더불어 제주도내 외국인 거주자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sup>1)</sup>



구 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전년대비 증가수 (증가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6년	<b>2,645</b>	1,391	1,254	<b>1,744</b>	911	833	<b>901</b>	480	421	-
2007년	<b>4,015</b>	2,156	1,859	<b>2,694</b>	1,392	1,302	<b>1,321</b>	764	557	1,370 (51.8)
2008년	<b>5,052</b>	2,719	2,333	<b>3,372</b>	1,702	1,670	<b>1,680</b>	1,017	663	1,037 (25.8)
2009년	<b>6,944</b>	3,675	3,269	<b>4,887</b>	2,499	2,388	<b>2,057</b>	1,176	881	1,892 (37.5)
2010년	<b>7,343</b>	3,781	3,562	<b>5,195</b>	2,606	2,589	<b>2,148</b>	1,175	973	399 (5.7)

<표 I -1> 연도별 제주도내 외국인 주민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청 ※ 2010. 1. 1. 기준 (단위: 명) )

제주특별자치도청 통계에 따라 제주도내 외국인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북아 국가 3,938명, 동남아 국가 2,359명, 남부 아시아 131명, 중앙 아시아 87명, 그 외 미국 448명, 캐나다 169명 등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단일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수의 영어교육 관련 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재외국민 때문일 것이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베트남 1,076명, 필리핀 503명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화되고 있는 다문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시아 지역 손짓언어(hand gestures)에 관한 논문들이 있지만, 특히 동남아 지역에 관련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 가운데 손짓언어 외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sup>2)</sup>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국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필리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택하였다.

- 1) 이 논문의 설문 대상자는 제주도 거주 필리핀인들이며, 전체 제주도 거주 필리핀인들 중 약 10%에 가까운 53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 2) 한국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에서 논문 검색을 통해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2011년 10월 1일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베트남은 0건, 필리핀은 3건이 전부였다.

첫째,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이고,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스페인, 미국의 식민지로서 그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아시아적인 특성과 서구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진 필리핀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대상으로서 매우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둘째, Remand et al.(1991: 218)는 ‘문화적 변이는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언어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하였다. 필리핀이 아시아 지역이면서 인구의 50%이상이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미국 식민지 지배에서 이미 벗어났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영어라는 언어적 표현방식의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인구 비례 상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이 이러한 필리핀의 문화와 그 문화에 기반을 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알아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거주 필리피노들과 제주도민, 더 나아가 한국 내 거주 필리피노들과 한국인들이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원활히 의사소통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 2. 선행연구

Knapp(1978: 27-29)의 저서에서, 서구의 1970년대까지의 이 분야의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이전의 연구는 1872년에 나온 다윈(Darwin)의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이다. 이 연구는 얼굴 표정에 대한 현대의 연구를 가져왔고, 그의 많은 관찰과 사고는 현대 다른 연구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1950년대는 순수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진척을 보였고, 이 시기에 가장 획기적인 연구로는 Birdwhistell(1952)의 *Introduction to Kinesics*와 Hall(1959)의 *Silent Language*가 있다. 이 두 인류학자는 언어학의 원칙들을 가져다 비언어적 현상에 적용 했으며, 신체 움직임에 ‘kinesics’ 라는 이름과 공간에 대해 ‘proxemics’ 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또한 이 시기에 정신과 의사인 Jurgen Ruesch와 사진사인 Weldon Kees(1956)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 *Nonverbal Communication: Notes on the Visual Perception of Human Relations*을 출판하였다. 이는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는 용어가

책의 제목에서 쓰인 최초의 책이다.

1960년대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1950년대에 비해서 엄청난 양적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신체의 구체적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당시 언론인이었던 Fast(1970)는 소수의 학자들에 의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Body Language*라는 그의 책에서 소개하였고, 이것이 1970년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로서 일반인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관련 책자의 꾸준한 출판을 이끌었다.

비록 이와 같은 책들이 연구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일반대중의 관심을 얻었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대중화된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몇몇 설명은 어떤 특별한 행동의 의미는 종종 그 행동이 일어나는 문화적 맥락에 의해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상기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는 행동은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는 애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는 공격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상이 1970년대까지의 Knapp에 의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정리다.

김우룡·장소원(2004: 498)은 1980년대 와 2000년대 까지의 서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대략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80년대는 비언어적 행위에 있어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연구하던 시기였다.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적 연구 결과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완성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하던 시기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연구방향은 개인적 연구에서 상호작용적 상황의 연구로 바뀌었으며, 단일 행위에 대해 단순하게 설명하려는 태도에서, 복합적 행위를 통해 의미가 표현되는 총체적 현상을 연구하는 자세로 바뀌었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풍부한 연구 성과를 낳은 서구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연구는 1980년대 박명석(1980)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노미(2006)에 의하면, 한국 내 문화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최

초의 연구는 박명석(1980)의 “문화권 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고찰”이었고, 이 연구는 한국 내 문화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비로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언어학 분야에서, 문화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두각을 나타냈고, 외국어 교육에서 동작교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박명석(1980)은 “문화권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고찰”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충격에 대해 서술하면서, 비언어적 행동양식은 자연발생적인 동작도 존재하지만, 언어가 나라마다 문법적 체계를 갖는 것처럼 추상적이며 임의적인 체계(arbitrary system)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비언어적 행동양식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1950년대 아이젠하워와 후르시츠포의 예<sup>3)</sup>와 그 외 몇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그 예들을 통해 ‘한 문화의 비언어 행동방식은 그 문화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단편적인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전 패턴을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검토 분석해야 만이 한 문화를 오해나 문화적 충격 없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계자(1998)는 “비언어적 요소인 한·독 신체언어 기호의 비교분석”에서 신체동작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기호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한국과 독일의 특이한 신체기호, 같은 형태지만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신체기호 그리고 문화의존성이 적고, 많은 신체기호 등을 비교, 설명하였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고 있는 신체 언어기호에 대한 올바른 의미해석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언어학습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타 문화권에 대한 비언어적 기호체계에 대한 학습이 절실히 요구되고,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언어-문화의 의식구조, 가치기준, 행동양식 등을 포함한 통합적 모델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추계자는 그 외에도, 2001년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공간, 시간, 침묵”, 2002년에 “비언어적

3) 이 논문에 의하면, 1939년 후르시츠포가 아이젠하워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대한 답례로 두 손을 머리위로 올려 꽉 붙잡고 악수하듯이 계속 흔들었다. 그 당시는 소련이 무인위성을 달에 보내는데 성공했던 때였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승리감에 도취된 권투선수가 하는 행동처럼 미국 시민들에게 보였다. 이 내용은 똑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문화 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의사소통체계의 유형에 관한 연구” 등을 발표하였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공간, 시간, 침묵”에서 그녀는 문화마다 다른 공간, 시간, 침묵의 개념에 대해 한국, 독일 등의 예를 들어 설명했으며, 여기에서 그녀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은 Hall의 공간, 시간의 원리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윤희(1999)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체계적 분류를 외국문헌들을 통해 하였고,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 비언어적 요인이 차지하는 범위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구가 국내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언어적 행위를 몸짓과 자세, 신체접촉, 얼굴 표정과 시선, 체형, 의복, 공간 그리고 인상의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김영순(2000)은 기호화된 언어와 구두화된 언어를 인간의 동작 체계로 통합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한국인의 손동작을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그 의미와 화용을 분석하였다. 통합기호학은 기호통사론, 기호 의미론, 기호 화용론적 차원을 통합한 기호학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명령형 발화 ‘조용히 하라’ 혹은 청유형 발화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검지를 입술 위에 수직으로 놓는다고 가정할 때 손동작은 기호표시 즉 기호 통사론적 대상이 되며, 동작의 의미는 의미론적 대상이 되며, 기호를 수용하는 측에서 인지 상태 등의 기호사용에 대한 연구는 기호 화용론적인 대상이 된다. 그녀의 연구는 한국인의 손동작을 의사소통 행위 유형에 따라 기호 통합적으로 분석했고, 채집한 80가지 손동작 목록 중 특이한 동작을 중심으로 학부생 60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왕례량(2004)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신체적 의사 전달 행위와 준 언어에 관한 비교를 하였다.

이노미(2006)는 “문화 간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인지능력 평가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 지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짓언어’를 중심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과 위험성 등에 대해 논하면서 ‘진정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이해는 타문화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신체언어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손짓언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녀는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이 한국어와 중국, 아리아어, 티벳어, 몽골어, 통구스어, 타이어 타갈로그,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므로 다른 그 어느 곳 보다 문화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과 아시아 지역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손짓언어에 대한 한국과 아시아 지역 12개국의 체계적이면서 구체적인 실험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손짓동작은 크게 1. 의례, 평가 동작, 2. 요구,청유 동작, 3. 감정표현 동작, 4. 정보제공 동작, 5. 지시 동작 등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동작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어 분석되고 있다. 이 논문은 또한 문화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인 손짓언어는 문화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서 그것에 대한 이해는 각 문화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상이한 언어체계의 문화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해 손짓언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진정한 이해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경(2008)은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신체동작과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12개의 신체 동작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영어권(미국, 호주, 영국) 화자를 대상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들이 주요 영어권 국가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그녀는 주요 영어권 국가 사이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는 보편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개인별, 국가별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면서, 영어교육 분야에 있어서 보편성이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이 한국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연구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로, 이제까지의 한국연구들이 서구의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원론적인 연구이거나, 한국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서구와 비교하는 형태의 연구로서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노미(2006)의 논문이 나온 시점 이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박사연구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또한 많지 않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분야는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데, 많은 연구가 제스

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그 외 다른 영역에 대한 연구는 현저하게 적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권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에 대한 제스처를 제외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나머지 영역 중 몇 가지를 이 논문은 다뤘다.

### 3. 연구의 제한점

어떤 특정 문화권 또는 그룹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보편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며 수치화된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설문보다는 특정한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화된 행동관찰을 통한 연구가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거주 필리피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계량하기 위한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필리피노들이 그룹을 지어 다니는 경우 또한 보기 힘들었다. 이와 같은 여러 한계점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야 중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간, 공간, 신체접촉, 시선접촉에 관한 국가별 또는 문화권별 계량화 되어진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Remnand et al.(1991: 216)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Despite the claims made about cultural differences in proxemics and haptic behavior, the evidence to date has been remarkably limited. Apart from the fact that much of the research is anecdotal (e.g., Jourard, 1966; Morris, 1971), few studies have been done within the culture of interest, in natural settings, using unobtrusive measures.

비언어적 행위의 일부인 공간과 접촉에 대한 세 개의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그들은 많은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연구들이 해당 문화권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차이가 없다. 한국의 경우도 또한 그러하다.

한국의 경우 특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다른 나라 또는 문화와 비교하기 위해서 계량화된 자료보다는 관련 문헌과 언론 또는 인터넷 정보에 의한 대략적인 제안들을 참고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상에서 성별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가 여성으로서 성별에 의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 4. 논문의 구성

이 연구는 필리피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로서 먼저 필리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역사, 언어, 그리고 필리핀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전조사를 인터넷과 기존 연구를 통해 하였다.


그 다음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기술하였다. 나아가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유형에 대한 정리를 통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루어지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기능 등을 기존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의 거주자를 통한 설문 결과의 처리 방법과 설문 결과의 분석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통한 결론 및 제언을 실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필리핀

#### 1.1 개요

필리핀 관광청(Philippine Department of Tourism-Korea)에 의하면 필리핀의 전체 면적은 299,000km<sup>2</sup>로 북쪽으로는 대만, 남서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남쪽에는 인도네시아가 근접해 있다. 필리핀 군도는 남북 길이가 1,850km에 이르는 7,107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필리핀은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필리핀 국민들은 말레이족을 근간으로 하여 중국, 미국, 스페인 및 아랍 혈통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구는 97,976,603 (2009년 7월 기준)명으로 말레이시아계, 중국계, 혼혈계의 메스티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구의 82%정도가 로마 카톨릭, 9%가 프로테스탄트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카톨릭 국가이며, 5%가 이슬람 교도로 이들은 주로 민다나오에 거주하고 있으며, 3%가 불교 등의 종교를 믿고 있다. 서구 국가의 오랜 식민 통치 역사와 무역 상인들의 혈통이 섞여 외모와 문화 모두에서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혼합된 국민적 특성이 나타난다. 필리핀 국민의 특성은 실제로 모든 문화가 조금씩 섞여 있다. 필리피노들의 유명한 친족 정신은 말레이족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긴밀한 가족 관계는 중국인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신앙심은 16세기 기독교를 전파한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친절은 모든 필리피노들의 공통 성격이며 구별되는 요소이다.<sup>4)</sup>

#### 1.2 필리핀의 역사

포르투갈 탐험가였던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이끄는 스페인 여행가들이 1521

4) Philippine Department of Tourism-Korea. “필리핀 소개”. <[http://www.7107.co.kr/about\\_philippines.asp](http://www.7107.co.kr/about_philippines.asp)>. 2011. 2. 23. 검색.

년 필리핀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인도-말레이 상인과 중국 상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 스페인 여행가들은 이 군도를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이름에서 따온 ‘펠리피나스’라고 칭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필리핀에 기독교를 처음으로 들여왔다. 마닐라와 세부가 전략적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리핀을 이상적인 상업의 중심지로 여겼다. 필리핀 행정부는 세부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1571년 마닐라로 이주했다. 스페인 식민지는 1571년부터 1898년까지 약 330년 동안 지속되었고 1898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 식민시대를 거쳤고, 그 기간 중 1942년부터 1945년 까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정식 독립하고 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5)</sup>

### 1.3 필리핀의 언어

국가언어로서의 타갈로그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 그것은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준다. 마닐라 지역에서 일반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타갈로그가 사용되고 사업 또는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Woods 2006: 220).

이기석(2008)에 의하면 필리핀은 독립 이전에는 미국의 미국화 정책을 위한 영어교육이 있었다. 그리고 독립 이후 1957년에 학교 수업을 위한 강의 언어 정책(타갈로그, 지방어, 영어의 사용)을 시행했으며, 1974년에는 초·중등의 모든 학년에서, 1975년에는 고등교육에서까지 영어와 타갈로그에 의한 이중 언어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학교에서의 이중 언어정책은 과목별로 과학과 수학은 영어로 가르치고 여타의 다른 과목은 타갈로그로 가르치는 과목별 분리 이중 언어 정책이었다.<sup>6)</sup>

필리핀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영어를 쓰는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사람들은 필리핀을 영어권 국가라고 분류하지만 필리핀에는 무려 70개의 언어와 방언이 존재한다. 이중 9개를 필리핀 인구의 89%가 사용한다. 영어는 20세기 초 공교육체계를 통해 필리핀에 들어왔고, 상위언어로서의 영어는 지식

5) Philippine Department of Tourism-Korea. “필리핀 소개”. <[http://www.7107.co.kr/about\\_philippines.a-sp](http://www.7107.co.kr/about_philippines.a-sp)>. 2011. 2. 23 검색.

6) 이 논문에서 이기석은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의 언어정책을 비교하면서 영어사용 인구수가 식민지국가로서의 기간이 아니라 그 국가의 언어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식민지기간이 가장 짧은 싱가포르가 전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영어 사용 인구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인이 배워야 할 언어였고, 식민지하에서 신분상승의 중요한 도구였다. 필리핀의 영어에 있어, 필리피노들은 영어에 그들의 토착어 발음을 접목시켰다. 간단히 말해서 영어의 모음이 가진 복잡성과 변칙성을 무시한 채 스페인 언어의 다섯 개 모음만으로 발음하고, 많은 필리피노들이 'f' 발음을 하지 못해 'p'로 대체한다. 또한 어떤 영어단어들은 필리핀 고유의 뉘앙스와 의미를 풍긴다(Roces et al. 2005).

#### 1.4 필리핀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전 이해

다음은 서구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필리피노의 개인공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어떤 인터넷 잡지의 내용이다.<sup>7)</sup>

##### *Personal space*

A lot of things are very different between Philippine Culture and western Culture. Way different. Recently,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one difference that accounts for many other differences at once. What is that difference? There is no “Personal Space” allowed for in Philippine Culture.

In the west, we assume that a certain “zone” around our bodies is our personal space. Depending on the social situation, the amount of space in this zone varies, but it is always there. Here in the Philippines, you rarely get any personal space, unless you go out of your way to create it yourself. And, if you do that, I believe that it can be looked at as being somewhat “bastos.” What is Bastos? That would be defined as being somewhat vulgar, or maybe even “against the norm.”

7) Mindano Bob(2008). "Personal Space", <Live in the Philippines>, <<http://liveinthephilippines.com/content/2008/02/personal-space>> 2011. 2. 24 검색. 이 글에서 Bob은 몇 가지 예를 더 들고 있는데 수영장에서 한 레인을 사용할 때 다른 레인이 있는데도 자신이 사용하는 레인을 필리피노가 이용하는 예와 필리피노에게 심부름을 보내면 짝을 지어 움직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먼 친척이 또 다른 친척의 집을 연락 없이 방문해서 며칠을 보내기도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서구사회에서 이해되기 힘든 개인공간의 침해라고 말하고 있다.

... 중략 ...

Bedspacers. Did you know that here in the Philippines you can rent space as a “Bedspacer?” What is that? Well, it means that you pay a monthly rental and in return you get a space in a bed to sleep. There may be 3 or 4 (or more!) others who sleep in that same bed with you, even though you don’t even know them! And, the landlord can rent out another space to somebody that you don’t care for or even like. In the west, a “bedspacer” would not even be considered! Heck, I don’t even know if it would be legal for somebody to rent out space in a bed to strangers! How would you like sleeping night after night with a group of people (in the SAME bed) that you don’t know?

"Bedspacers"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새로이 말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침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르는 사람끼리 한 침대에서 3, 4명 또는 그 이상이 세를 내고 같이 잔다는 것은 옛날 한국의 주막에서 먼 길을 가던 나그네들이 한 방에서 하루 밤을 보내던 모습보다도 더 문화 충격적이다. 방이라는 개념보다 침대라는 개념이 보다 더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적 공간의 공유는 또한 접촉지향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Roces et al.(2005: 14-19)는 필리피노들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얼굴표정

굳이 말이 없어도 눈썹을 이용해 인사를 나눈다. 눈이 마주치면 즉시 양 눈썹을 올렸다 내린다. 눈인사 다음에는 안녕하세요의 의미로 미소를 나눈다. 언제나 미소를 짓는다. 난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전환을 위해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말 없는 미소로 상대방에게 비판의 의미를 전달할 수

도 있다. 환한 웃음부터 특별한 시선이 동반된 얇은 미소까지 상황별로  
각양각색의 웃음이 등장한다.

- 시선

누군가를 똑바로 응시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며 심지어 사악한 눈길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나라에서 사술을 익힌 사람으로 통하는 ‘망쿠쿨람  
(mangkukulam)’은 눈길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괴로움을 안길 수 있다  
는 믿음이 있다.

- 팔과 손동작

양손을 허리에 올리는 자세는 건방지다고 간주된다. 실수를 하면 뒷머리  
아랫부분을 긁적이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지나거나 두 사람 사  
이를 통과할 때면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움직인다. 어떤  
사람의 정면을 지날 때는 한 손을 정면을 향해 곧게 펴고 팔꿈치를 구부  
린 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다. 누군가를 손짓으로 부르는 것은 예의바  
르지 못한 행동이다. 특히 손가락을 까닥거리는 행동은 금물이다. 손가  
락을 튕기거나 손바닥을 마주쳐서 웨이터를 부르는 행동도 하면 안 된  
다. 누군가의 주의를 끌려면 팔꿈치를 손가락으로 슬쩍 잡듯이 건드리면  
되는 것이다. 이때 손바닥은 밑으로 향한다. 가볍게 손을 흔드는 것은  
괜찮다. 필리피노들이 방향이나 장소를 가리킬 때는 입을 삐죽거리거나  
눈길을 바꾼다.

- 신체접촉

필리핀은 접촉지향의 사회로 여겨지며 동성의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인  
공간이 줄어들고 더 많은 신체접촉이 있게 된다. 이성 간의 공공연한 신  
체접촉은 금기시 된다. 여성끼리 서로의 뺨에 입 맞추며 인사를 나누지  
만 이성간에는 정중히 거리를 유지하고 남녀사이의 악수는 가능하지만  
여성이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 시간

이 나라에서 시간엄수가 예의바른 행동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공무상 약속은 엄격히 지키는 편이다. 하지만,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상당히 느슨하다고 볼 수 있다.

• 의복

체면치레를 신경 쓰는 필리핀 사회에서 차림새가 매우 중요하고,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사회적 계급은 어디에 속하는지 등을 차림새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특히 미소를 당황함, 사과 등 다양한 감정표현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피노들의 다양하고 외국인이 이해하기에 모호한 얼굴 표정과 미소는 필리핀에서 서구인들을 빈번히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또한 많은 필리핀 관련 글에서 'no'인 상황에서도 'no'라고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필리피노들의 'ye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알아야 할 것 같다.<sup>8)</sup> 필리핀의 역사, 문화, 기존에 알려진 사실 들과 연구문헌들을 볼 때 필리핀은 라틴 아메리카, 중동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처럼 고맥락<sup>9)</sup>, 그리고 집단주의사회<sup>10)</sup>이면서 접촉 지향적이며, 시간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보이며, 공간사용에 있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타갈로그와 영어를 병용하는 국가이지만 앞의 예에서처럼 문화의 특이성과 그 문화에서 오는 다양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영어권 국가 출신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리피노들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 (1) 시대성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문헌들과 일반적인 주장에 근거한다면 그 이론들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며, (2) 필리피노를 여러 가지 문화유형들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라면 무조건적 이분법에 의해 나누는 것이기 보다 스펙트럼의 연속성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8) Woods(2006: 245) 필리핀 사회에서 직접적 대치는 일반적으로 피한다. 어떤 질문이 부정적인 대답을 재촉하는 질문 일 때, 부정적인 대답이 주어지기보다는 덜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초대에 응해 가지 못할 때에도 'NO'라고 하기 보다는 "I'll try"라고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9) 고맥락(high context)는 Hall(1976)에 의해 사용된 용어다. 본 논문 II.3, 문화의 유형 참고.

10) 집단주의(collectivism)는 Hofstede(1984)에 의해 사용된 용어다, 본 논문 II.3, 문화의 유형 참고.

점을 고려해야 한다.

## 2.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문화 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의미,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일 뿐만 아니라 또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외의 모든 상호작용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무형적, 유형적, 의지적, 무의지적,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것들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정의 할 수도 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학습에 의해 습득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한 사람의 정체성과, 한 문화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사람의 유대와, 생존을 보장하게 된다.

Klopf et al.(2007: 33-34)은 커뮤니케이션을 매개커뮤니케이션(meditated communication)과 구두커뮤니케이션(oral communication),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은 메시지 전달 매체에 따른 구분으로서 먼저 매개커뮤니케이션은 기계적 장치를 매개체로 하는 방식으로서 공학적 개념에 가깝고, 구두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라는 인문학적 개념에 가깝다. 이 논문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두커뮤니케이션 개념에 가깝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든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다.

Hall(1959)에 의하면 “문화란 이미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의미를 더한다고 해도 그것에 어떤 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문화란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짧고 명쾌하게 말했다. Hall은 또한 도입부에서, 미국의 해외 파견프로그램에서 파견되는 나라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문화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만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교육에 있어 그 나라의 언어, 역사, 정부, 관습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sup>11)</sup>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했다.

한편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있어 Birdwhistell(1970: 250)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문화의 지속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를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단정 지어 말해서는 안 되며, 커뮤니케이션의 행위가 다른 많은 요소들과 더불어 상호 독립적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Birdwhistell 또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다를지라도,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Inman et al.(1991)는 다음과 같이 문화를 정의하고 있다(Novinger 2001: 14에서 재인용).

Culture refers to "knowledge, experience, meanings, beliefs, values, attitudes, religions, concepts of self, the universe and self-universe, relationships, hierarchies of status, role expectations, spatial relations, and time concepts" accumulated by a large group of people over generations through individual and group effort. "Culture manifests itself both in patterns of language and thought, and in forms of activity and behavior." Culture filters communication.

그의 정의에 의하면 문화는 개인과 그룹의 노력에 의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지식, 경험, 의미, 믿음, 가치, 태도, 종교, 자아의 개념, 우주, 자아의 우주, 관계, 지위의 체계, 기대역할, 공간의 관계, 그리고 시간개념 이다. 그리고 문화는 언어와 사고의 유형 속에 그 자체를 표현하고 활동과 행위의 형태 속에서 표현되며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문화에 의해 필터링 된다는 것은 위의 정의된 수많은 문화적 요소들, 즉 비언어적 요소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Ting-Toomey(1999: 12-15)는 또한 문화의 기능을 다음과 정의하고 있다.

First, culture serves the identity meaning function

---

11) 그의 책에서 이 nonverbal language를 the silent language라고 하고 있다. 소리에 의해 전달되지 않지만 또 하나의 언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Second, culture serves the group inclusion function, satisfying our need for membership affiliation and belonging.

third, culture's intergroup boundary regulation function shapes our in-group and out-group attitudes in dealing with people who are culturally dissimilar.

Fourth, culture serves the ecological adaptation function.

Fifth and finally, culture serves the cultural communication function, which basically means the coordination between culture and communication.<sup>12)</sup>

Ting-Toomey의 문화의 정의 중 마지막 정의는 Hall(1959)과 Porter(2001)의 정의와 일치하는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한 정의다. Ting-Toomey(1999)는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정의되고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의 형태를 만든다고 했다. 이것은 국가 간, 문화 간 구성원들 사이에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문화가 전송, 학습 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 국가 또는 상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해와 갈등 그리고 문화 충돌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 문화 유형의 분류

오늘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그 이유를 변명섭(1999: 78-79)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 정치 및 경제체계의 변화(political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 (2) 인터넷의 출현(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as communication resources),
- (3) 세계시장개방(the rise of global business as free trade and common markets), (4) 위성방송도입(the emergence of satellite broadcasting as

12) Ting-Toomey는 이어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송 되고, 창조되고, 수정되어지는 것은 바로 문화를 통해서다."라고 말하면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이 관계를 상호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a means of global distribution), (5) 다문화 가구의 증가(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organizations), (6) 이민의 변화(changes in immigration patterns)등의 영향은 세계를 지구촌화(globalization)하고 있으며 사람(people), 정보(information), 통신(communication)의 급속한 흐름으로 인한 타문화와의 접촉(intercultural contact)은 한 국가나 민족의 특정문화(local, domestic, or home cultures)가 보편문화(universal, global or cosmopolitan cultures)와 동화 또는 공존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습득과 훈련을 위해 먼저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문화에 대한 틀을 만든 대표적인 인물은 Hall과 Hofstede이며 많은 학자들이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할 때 그들의 이론을 인용하고 있다. Lustig et al.(2003: 135)는 문화유형의 분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 categories in these taxonomies can help you to describe the fundamental aspects of cultures. As frames of reference, they provide mechanism to understand al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vents.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화 유형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상대가 속한 문화 유형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인 그 개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3.1 Hall: 저맥락 대 고맥락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s)와 저맥락 문화(low-context cultures)라는 용어는 Hall(1976)의 책 *Beyond Culture*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이는 Basil Bernstein의 "elaborated and restricted codes"의 개념을 Hall이 확장시켜 맥

락의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다.<sup>13)</sup> 고맥락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규칙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많은 맥락적(환경적) 요소들이 있고 그 결과 그 규칙들의 암시적(implicit)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당연히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혼란스럽다. 반면에 저맥락 문화에서 대부분의 규칙은 명시적(explicit)이다. 그러므로 규칙 자체만으로도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할 수 있다.<sup>14)</sup>

Ting-Toomey(1999:101)는 저맥락과 고맥락 문화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Low-Context Cultures	High-Context Cultures
● Individual values	● Group-oriented values
● Self-face concern	● Mutual-face concern
● Linear logic	● Spiral logic
● Direct style	● Indirect style
● Person-oriented style	● Status-oriented style
● Self-enhancement style	● Self-effacement style
● Speaker-oriented style	● Listener-oriented style
● Verbal-based understanding	● Context-based understanding

<표 II-1> 저맥락 과 고맥락 유형

저맥락 문화는 개인적이며,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하며, 직접적인 성향을 띠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진행하는 선형적 방식이며, 자신을 강조하려 하며, 언어 의존적이다. 반면에 고맥락 문화는 그룹 지향적이며, 상호의 면목을 중요시하며, 다중적이며, 간접적인 성향을 가지며, 지위와 신분을 중요시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듣는 사람을 중요시하며, 문맥에 기초한 이해를 한다.

13) Klopf et al.(2007: 185-186) 이 책에서 저자는, Bernstein은 다른 사회적 계층의 아이들을 실험하였고, 중류층의 아이들이 정교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어휘와, 정확한 문법적 구조를 가진 정교한(elaborated) 코드를 사용했던 반면에 하류층의 아이들은 짧고, 문법적으로 단순하고, 통사적으로 빈약한 구조를 가진 제한적인(restrictive) 코드를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14) 명시적, 암시적 개념은 이 논문 연구 중 이기석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Low-context**

**High-context**

←		→	
Germany	United States	Saudi Arabia	Japan
Switzerland	Canada	Kuwait	China
Denmark	Australia	Mexico	South Korea
Sweden	United Kingdom	Nigeria	Vietnam

<표 II-2> 저맥락과 고맥락의 국가분류

표 II-2에서, 유럽, 미주, 호주, 영국 등이 저맥락 국가들이며 중동, 남미, 아시아권 국가 등은 고맥락 국가들이다. 저맥락, 고맥락의 개념은 또한 연속체의 개념으로서 그 연속선상에 여러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두 개의 문화를 비교하여 한 문화가 또 다른 문화보다 저맥락인지 또는 고맥락인지를 말할 수 있다.

필리핀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필리피노들은 가족 지향적이고 집착지향적이며 비언어적 행위를 다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고맥락 문화에 가깝고 그 정도가 한국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고맥락과 저맥락의 개념은 하나의 문화권에서 개인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대 간에도 또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 개인을 그가 속한 문화권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맥락적 기준은 한 개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활한 문화 간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2 Hofstede: 5차원 문화유형

Hofstede는 영향력 있는 네덜란드의 조직 사회학자로서 국가 문화와 조직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Culture's Consequences*, *Cultures and Organizations* 그리고 *Software of Mind* 등이 있다. 그의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 또는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해 사회와 지역의 그룹화를 시도했다. 그의 연구는 처음에 다국적 기업인 IBM의 전 세계 지사들의 국가문화 차이에 대한 프로젝트에 기초하였다. 그는 각각의 그룹평을 위

해 사용되는 기준을 차원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의 웹사이트<sup>15)</sup>를 통해 다섯 가지의 차원에 대한 국가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 차원에 대한 웹사이트 상의 설명과 이전 논문<sup>16)</sup>을 통해 제시된 문화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권력거리지수(power distance index)다. 이것은 더 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고 받아들이는가를 말한다. 이 지수는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individualism vs. collectivism)다. 개인주의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회에 통합되느냐를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개인주의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유대는 약하고, 개인은 스스로를 돌보는데 책임을 갖는다. 반대로 집단주의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룹 또는 확대 가족 속에 강력하게 통합되고 무조건적인 충성심 속에 서로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국가에 적용되는 정치적 개념은 아니다.

셋째는 남성성 대 여성성(masculinity vs. femininity)이다. 이것은 일련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되는 성별 사이의 역할의 분배에 대한 것으로 여러 사회에서 여성들의 가치관은 남성들의 가치관과 다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반면, 남성들의 가치관은 여성들의 가치관과는 매우 다르게 아주 단호하고 경쟁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여성들의 가치관과 비슷한 온순하고 자상한 가치관까지 존재한다. 이때 여성성의 나라에서는 여성들은 남자들처럼 자상하고 온순한 가치관을 갖는 반면에 남성성의 나라에서는 여성들은 남자들만큼은 아니라도 단호하고 경쟁적인 가치관을 갖는다.

넷째는 불확실성 회피지수(uncertainty avoidance)다. 이것은 불확실과 애매함에 대한 사회의 관용의 정도를 나타낸다. 새롭고, 알려지지 않았으며, 놀랍고, 일상적이지 않으면서,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을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불확실성 회피지수가 클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감성적이며, 내적에너지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반면에 불확실성 회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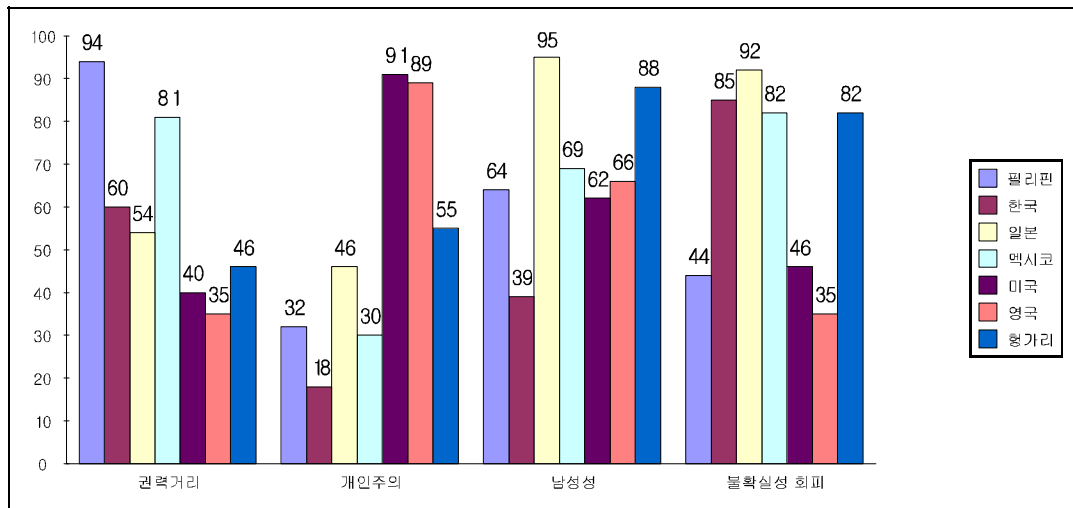
15) <<http://www.geert-hofstede.com/>>, *Cultural Dimensions* 2011. 3. 3 검색

16) Geert Hofstede(1984: 391, 393) 여기서 Hofstede는 x,y 좌표식 도표에 의해 각각의 나라가 문화유형이 4분면의 영역 중 어느 곳에 속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Hofstede는 단기지향과 장기지향 차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나머지 네 개의 영역에서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미국의 비교는 1984년과 현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의 문화유형 설명이 세계 상황의 변화와 시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가 낮을수록 익숙하지 않은 것을 쉽게 받아들이며, 가능한 한 적은 규칙을 갖는다.

다섯째는 장기지향과 단기지향 차원(long-term orientation vs. short-term orientation)이다. 이것은 처음에 있었던 4개의 차원에 나중에 추가되었다. 장기지향은 근면, 인내와 연관되며, 단기지향은 전통에 대한 존중, 사회적 의무의 이행, 사람의 면목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다.

위의 5가지 문화 차원 중 장기지향과 단기지향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 차원들을 통해 필리핀 및 몇 개 국가의 문화차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 Hofstede의 국가별 문화 차원 그래프17)

<그림 II-1>에서 한국, 필리핀의 권력거리가 미국, 영국, 헝가리에 비해 높고 집단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집단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고맥락의 문화임을 나타낸다. 필리핀의 불확실성 회피지수가 한국, 일본 등의 불확실성의 회피지수보다 작다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필리핀은 타 문화와 많은 접촉을 했으며 그로 인해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커졌을 것이다.

Hofstede의 이론의 초점은 국가문화에 대한 일반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국가 안에서 개인 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며, 이 자료가 만들어진 2003년과 현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

17) 문화차원 그래프에서 장기지향과 단기지향차원이 제외된 것은 그것에 대한 국가별 자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렇더라도 Hofstede의 연구는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며, 그 속에서 해당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된다.

#### 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Samovar et al.(1991: 179)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Nonverbal communication involves all those stimuli(except verbal stimuli) within a communication setting, generated by both the individual and the individual's use of environment, that have potential message value for the sender or receiver.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환경 안에서 언어적 자극을 제외한 송신자 또는 수신자를 위한 잠재적 메시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극을 말한다.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인식된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구체적 개념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촉각, 시선, 음량, 목소리의 뉘앙스, 개인 거리, 공간, 몸짓, 얼굴표정, 의복, 자세, 냄새, 시간의 사용 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언어적 요소들이다. 그러나 그 외의 많은 것들이 비언어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로서 여자 친구를 선택하는 남성도 그 선택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BaTal & Sax는 육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남성이 매력적인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은 그 남성이 돈을 많이 벌었거나, 지적으로 우수하거나, 또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다(Zastrow et al. 2007: 404에서 재인용). 그렇게 본다면 한국 사람들의 중형차 또는 외제 차

동차에 의한 자기 과시 또한 일종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1) 범문화적이지 않고 (2) 문화적으로 습득되며, (3)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Klopf et al. 2007: 217-19). 모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문화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단지 소수만이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한 개인이 그가 속한 그룹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는 의미들은 문화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은 대개 무의식적인 관찰과 개인적 경험에 의해 학습된다. 그리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Rogers et al.(1999: 164-65)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1) Nonverbal communication is present everywhere.
- (2) Nonverbal communication usually comes first.
- (3) Nonverbal communication is especially likely to be trusted.
- (4) Nonverbal communication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especially when verbal messages are missing or limited.
- (5) Nonverbal communication is especially important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ituations.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 심지어 침묵 또한 우리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미 말을 하기도 전에 비언어적 행위들이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무의식적인 것으로 밖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감정을 상대방에 전달하게 된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을 흘리거나 심장이 뛰는 것 등은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기 힘든 행위들이다. 그리고 눈동자의 팽창이나 얼굴표정을 보고 공포나 피곤함을 상대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이가 졸릴 때 아이의 눈언저리에서 졸음이 보여 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중요성이 더 클 수 있다(박명석 1980: 65).

비언어적 행위와 말이 다를 때 비언어적 행위가 더 신뢰를 얻는다. 우리는 말



을 할 때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신체의 행동변화, 얼굴표정의 변화, 심지어 자세의 변화 등이 말과 상반된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전달할 수 없으며, 그것은 제어되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더 신뢰될 수 있다.

특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문화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문화를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외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외국어를 숙달한다고 하더라도 언어행위를 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배우지 않고는 진정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유형은 문화권 마다 독특하므로 그 유형을 모르고는 진정한 의사소통은 없고 오해와 문화적 충격이 있을 뿐이다(박명석 1980: 64-65).

지금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국가 간 또는 문화 간 교류를 보고 있다. 또한 많은 외국으로의 여행과, 국외로의 이민,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과 그 외 외국인들의 유입을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또 하나의 언어로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 5.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세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기능하며, 그것은 (1)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지지하는 것, (2) 감정을 전달하는 것, (3) 밀접성을 시사하는 것이다(Klopf et al. 2007: 219).

### 5.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지지 기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하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Zastrow et al. 2007: 398).

첫째, 반복기능은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반복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는 ‘사랑해’ 하면서 머리위로 두 손을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드는 동작을 한다.

둘째, 대체기능으로 언어적 기능을 비언어적 행위가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잘못을 하고 집에 들어온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양팔을 가슴 앞에 놓고 교차시킨 상태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자식을 응시할 때 말이 없어도 그 자식은 부모가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강조기능으로서 언어적 메시지를 강조한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동작은 화난 상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또는 우리가 싫다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 높고, 큰 목소리로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싫다는 느낌을 더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규제기능으로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행위는 대화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또는 대화하는 상대방이 몸을 돌려 다른 쪽을 향하는 행위는 대화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의 기능으로서 비언어적 행위가 언어적 행위와 모순되는 경우이다. 우리가 한 친구에게 ‘화났니?’라고 할 때 큰 소리로 얼굴 붉히면서 말 끝을 올리면서 ‘아니라니까!’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화가 나 있지만 말로써만 화가 나지 않았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 5.2 감정전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얼굴과 신체표현에 의한 비언어적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음조가 자발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때 메시지 전달에 있어 말 그 자체 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한다(Zastrow et al. 2007: 220).

## 5.3 밀접성의 시사<sup>18)</sup>

18) Siegman et al.(1985: 1-2) Peter A. Anderson의 이론을 편집한 내용.

모든 메시지는 밀접성을 갖는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 인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따뜻함과 친근함을 전달하는 기능보다 더 중심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없다.

### Ⅲ. 연구방법과 분석

#### 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Novinger(2001: 57)의 분류 방식<sup>19)</sup>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Chronemics (Time Sense)
  - Monochronic
  - Polychronic
- Kinesics (Body Motion Communication)
  - Emblems (Gestures)
  - Eye Contact
  - Facial Expressions
  - Haptics (Touch)
  - Posture
  - Smell
- Proxemics (Space Sense)
  - Fixed-Feature Space
  - Semifixed-Feature Space
  - Informal Space
- Physical Characteristics
  - Artifacts (Extensions of Physical Self)
  - Physical Appearance
- Vocalics (Speech Characteristics)

---

19) Novinger(2001)의 이 분류는 Knapp(1972) 과 Samovar et al.(1991)의 분류와 Novinger 자신의 수년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생활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다. Novinger는 이 분류를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잠재적 장애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context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 장애 요소의 하나이지, 개인의 비언어적 행위의 유형이 아니므로 유형의 분류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immediacy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전달하고자 기능의 하나이므로 역시 제외되었다.

Vocal Characterizers

Vocal Qualifiers

Vocal Rate

Vocal Segregates

## 1.1 시간

Lustig et al.(2003: 193-194)에 의하면 세 가지 종류의 시간 시스템이 있다. 기술적인 시간 시스템(technical time system), 공식적인 시간 시스템(formal time system), 그리고 비공식적인 시간의 시스템(informal time system)이다. 첫째, 기술적인 시간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측정에 의한 시간이다. 이것은 문화와 무관하다. 둘째, 공식적인 시간이란 하나의 문화구성원이 시간을 묘사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 개념에서 시간 단위는 문화마다 다양하다. 한국의 음력 사용과 절기 등이 이러한 개념일 수 있다. 마지막이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공식적 시간이다. 이것은 문화에 의해 어떻게 시간이 사용되고, 경험되는지에 대한 추정이다.

시간은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갖고,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는 문화를 만드는 요소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한국에는 '코리언 타임'이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시간에 대한 태도를 대표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상황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모임의 공적인 성격이 얼마나 강한가, 또는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나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한국인이 친구 여러 명과 약속을 하고 만나러 나가면 그는 제 시간에 모두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늦는 것은 너그러이 용서해준다. 그러나 자리가 공적인 자리일 때 시간에 늦는 상황을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공적인 상황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당사자가 늦게 나타나는 것을 당연시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대부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서 시간에 늦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피하려 한다거나, 만나는 이유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추계자 2001: 95). 반면에 한국과 같은 동양권인 필리핀의 시간관념은 늦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심지어 공적인 일을 수행 할 때도, 시간에 맞춰 일이 이루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관을 갖게 되는 문화적 요인은 무엇일까?

다음은 한국의 시간의 개념이 서구의 시간 개념과 다른 이유를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인터넷 신문기사의 일부다.<sup>20)</sup>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부 정준영 교수는 "시간 개념의 발달은 산업화 시대를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했는가, 그리고 시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가에 달려있다"며 "서구에서 기계 시계의 역사는 13세기, 산업화는 18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어 "서양에서는 분 단위 시간 문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 메커니즘이 최소한 300~400년 이상 작동해왔지만, 한국은 다르다"며 "한국은 불과 한 세기 전 까지만 해도, '자시, 축시' 등 2시간 단위로 나뉘는 '농경 시간 문화' 속에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잘게 쪼갠 서양의 시간 개념이 한국 사회에 급속하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심각한 시간개념의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 때문에, '빨리 빨리' 문화가 횡행하면서도, 정작 시간 약속은 '느긋하게 잡는', 즉 시간 약속에는 철저히 않으면서도, 길이 막히면 못 견디는 모순된 시간 감각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위의 내용은 시간의 관념이 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형성되고, 변화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구와 다르게 똑같이 농경문화를 오랜 시간 경험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시간 개념이 유사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다루는 방식을 두 개의 개념으로 체계화 시킨 것은 Hall(1959, 1966)이다. 그는 *The Silent Language*와 *The Hidden Dimension*에서 두 개의 대비되는 시간개념, 단층적 시간(monochronic)과 다층적 시간(polychronic)<sup>21)</sup>이란 용어로 시간에 대한 인식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Hall et al.(1990:15)은 단층적 시간 성향의 사람과 다층적 시간 성향의 사람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20) "한국인 시간개념 없다고? 뒤집어보면 강점!" (2006. 09. 27. 기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http://www.nocutnews.co.kr)> 2011. 3. 5 검색.

21) 단층적 시간과 다층적 시간이라는 용어는 변명섭(앞의 글)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진 용어이다.

### 단층적 시간 성향의 사람

- 한 번에 하나의 일을 한다.
- 일에 집중한다.
- 시간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저맥락이며 정보를 필요로 한다.
- 일에 헌신적이다.
- 종교적일 정도로 일을 고수한다.
-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프라이버시의 원칙과, 속고의 원칙을 따른다.)
- 남의 사적자산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거의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는다.
- 신속함을 강조한다.

### 다층적 시간 성향의 사람

-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 일을 할 때 방해받기 쉽고, 주의가 쉽게 딴 데로 끌린다.
- 시간약속은 가능하다면 성취 되어야 할 목표다.
- 고맥락이며,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다.
- 사람과 인간관계에 대해 헌신적이다.
- 계획을 자주, 쉽게 바꾼다.
- 개인 프라이버시보다 가까운 관계(가족, 친구, 사업동료, ...)에 대해 더 신경 쓴다.
- 자주 빌리고 쉽게 빌린다.
- 신속한 처리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 평생 가는 관계를 만드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

## 1.2 신체언어

몸의 언어 또는 신체움직임에 대한 연구는 'kinesics'로 명명 된다. 이러한 신체 행위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 할 수 있는 제스처, 머리움직임, 얼굴표정, 눈의 행위,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육체적 표현을 가리킨다. Ekman et al.(1969:62-92)

은 kinesic behavior를 다음의 5가지 기능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2)

### **엠블렘(emblems)**

직접적인 언어표현으로 바뀔 수 있거나 또는 사전적인 정의를 갖는 비언어적 신체 행위다. 이것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단어, 또는 구절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머리를 끄덕이는 것은 불가리아에서는 'yes'를 연상하게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no'일 수 있다.

### **설명자(illustrators)<sup>23)</sup>**

직접적으로 언어와 연결된 움직임으로서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행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 **감정표현(affect displays)**

감정이나 느낌 등을 보여주는 얼굴의 움직임 또는 몸의 움직임을 말한다.

### **조절자(regulators)**

둘 또는 그 이상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말하기와 듣기의 오고 가는 본질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계속하게 하기, 반복하게 하기, 공을 들이게 하기, 서두르게 하기, 흥미롭게 하게 하기, 덜 추잡하게 하기,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하기 등의 행위들이다.

### **적응자(adaptors)**

주어진 환경에 의해 촉발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주로 어린 시절에 배워지고 어른이 되어서 그것의 일부분이 습관으로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지루함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반응이 있다. 문지르기, 비틀기, 긁기, 코 파기, 꼬집기 등이 있다.

신체의 움직임을 형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스처<sup>24)</sup>

22)Ekman et al.(1969: 62-92). 여기서 저자들은 이 분류의 대부분을 Efron(1941)에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

23) Ekman et al.(위의 책: 68). 여기서 illustrator는 다시 6개로 분류되어진다. Batons: 시간이 다되었음을 알리는 동작, Ideographs: 생각의 방향 또는 경로를 그려 보이는 동작, Deictic movement: 존재하는 물체를 가르키는 동작, Spatial movement: 공간관계를 묘사하는 동작, Kinetographs: 신체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작, Pictographs: 참고하는 것의 그림을 그리는 동작



제스처(gestures)는 생각, 의도, 또는 느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몸의 행위다. 이러한 움직임 중 많은 부분이 팔/손으로 이루어지지만 얼굴/머리 부분도 사용된다. 어떠한 문화 속 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제스처를 엠블렘이라고 부른다. 제스처 중 에는 문화 간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제스처도 있지만 또한 문화요소 중 하나로서 학습되어야 하는 제스처도 있다. 이러한 문화 간 상황에서 신체 동작이 만들어 내는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제스처들은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치명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몇 개의 제스처를 *Understanding Hand Gestures*<sup>25)</sup>와 이노미(2006)를 통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엄지 치켜 올리기**

엄지를 치켜 올리는 행위는 서구에서는 긍정적인 사인이다. 하지만 많은 라틴 아메리카와, 서아프리카, 그리스, 러시아, 사디니아, 중동, 남 이태리 등에서 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행위는 불쾌한 행동이다. 한국에서는 엄지를 치켜 올리는 행위는 '최고다,' '잘했다,' '멋지다,' '좋다' 등을 나타낸다. 이것은 필리핀에서 한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집게손가락 구부리기**

집게손가락을 자신을 향해 반복적으로 구부리는 행위는 미국에서는 유혹의 사인일 수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이 행동을 함으로써 체포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이것은 호출 동작으로 쓰일 수 있지만 점잖은 행동이 아니다. 이 행위는 심지어 많은 나라에서 무례한 동작으로 생각되는 행동이다.

### **오케이**

다른 손가락들을 위로 향하게 하고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만드는 원모양은 'okay'의 의미다. 미국과 영국인들은 상대에게 일이 잘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24) Ekman et al.(위의 책: 63)에 의하면 여기서의 emblem은 원래 kinesics 의 기능상의 분류로서 사용된 용어로서 kinesics의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이며 Efron(1941)에 의하여 제안되어진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gesture의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emblem으로 바꾸어 썼다.

25) *Understanding Hand Gestures*. <<http://www.bodylanguageexpert.co.uk/understanding-hand-gestures.html>>. 2011. 3. 20. 검색.

위해 이 제스처를 사용한다. 그러나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숫자 '0'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제스처를 사용하는 상대방을 '0'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브라질, 독일, 일부 지중해 국가에서는 향문을 의미 한다.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okay,' '좋다,' '찬성이다'를 의미하며 필리핀 또한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브이 사인**

'V'동작은 집게와 중지 손가락을 위로하게 하고 나머지 손가락은 구부려 아래를 향하게 한다. 동시에, 손바닥은 상대방을 향하게 한다. 미국에서는 승리 또는 평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손등을 상대방을 향하게 했을 때 이 동작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모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과 필리핀에서 이 동작은 미국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 **코르나**

코르나(corna)는 집게와 새끼손가락을 위로하고 중지와 약지를 아래로 구부리고 엄지가 중지와 약지를 누르면서 만드는 제스처로 악마의 뿔을 의미한다. 그러나 헤비메탈음악 팬들에게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텍사스 대학 팬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마스코트를 상징한다. 하지만 필리핀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제스처이다.

## **(2) 시선접촉**

일반적으로 우리는 눈을 보는 행위를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신체의 일부로 생각 하지만 눈은 매일의 상호작용 속에서 중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시선 마주치기를 불편해 한다. 한국 표현에도 "어디를 똑바로 쳐다봐"라는 표현에서,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는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 된다. 이러한 시선처리가 문화마다 다르고 문화는 그것에 대한 규칙을 갖는다. 그러므로 노려보기, 사랑스럽게 응시하기, 시선접촉의 빈도, 눈을 내려 깔기 등이 의미하는 것은 문화마다 다를 것이다.

### (3) 얼굴표정

최근 한국에서 미국 드라마, "Lie to me"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그 내용은 미국 FBI에 고용된 주인공 칼 라잇먼이 이끄는 조직이 사람의 행동과 특히 얼굴 표정을 통해 거짓말을 밝혀냄으로서 FBI의 수사를 돕거나, 또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거짓말을 밝혀내는 일을 한다. Ekman의 이론은 이 드라마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sup>26)</sup> 얼굴 표정에 있어서 Ekman은 2003년 그의 책 *Unmasking the Face*에서 비언어적 행위인 얼굴표현에 대한 그의 이론이 있기 전 까지 진정한 얼굴표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Birdwhistell(1970: 8)은 인간은 얼굴만으로 250,000가지의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kman(2003: 10-11)은 얼굴은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는 제일의 신호시스템으로서 정적신호(static) 느린신호(slow), 빠른신호(rapid)의 세 가지 신호를 제공한다고 했다. 정적신호는 다소 영구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머리모양, 뼈의 구조, 등을 나타내며, 느린신호는 시간과 함께 점차적으로 변하는 주름, 근육색조, 피부조직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빠른신호는 순간적인 얼굴근육의 움직임으로서 얼굴모습의 순간적 변화, 얼굴의 특징적 부분들의 모양과 위치의 이동, 일시적인 주름 등이다. 이러한 얼굴은 다중 신호 시스템인 동시에 다중 메시지 시스템으로서, 감정, 분위기, 태도, 성격, 지능, 매력,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보여준다

### (4) 신체접촉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접촉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매우 중요한 형태이며, 심지어 장애가 없는 보통의 사람들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신체접촉에 많은 의존을 한다. 우리는 신체 접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정서적인 메시지도 전달 받는다. 누군가 가볍게 등을 두드린다면 그것은 우정의 표시이거나, 격려의 의미일 수 있다. 인간의사소통의 가장 원시적이며, 기본적인 형태인 신체접촉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아기, 유년기를 거쳐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되며,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게 된다. 신체접촉의 유형은 문화마다 폭넓게 달라서 한 문화에서

26) Truth about "Lie to me". <<http://www.paulekman.com/news/recentarticles/>>. 2011. 3. 14 검색

가능한 것이 다른 문화에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Klopf et al. 2007: 228-229).

추계자(2002)에 의하면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올바른 시기, 장소, 방법, 누가 하느냐 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존재 한다. 그 사회적 규범이 신체접촉행위 가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 해낸다. 또한 신체접촉은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 신체접촉의 행위 시 신체접촉을 많이 하는 문화는 아랍인, 유대인, 동유럽인, 지중해 문화권사람, 중남미인 이며, 그렇지 않은 문화는 북유럽인, 독일인, 영국인이며, 일본이나, 한국도 신체접촉을 많이 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런 이유로 가령 접촉지향의 필리핀과 비접촉지향의 한국문화가 만날 때 상대방 문화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없다면 문화적 갈등이 초래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 또한 비접촉 문화의 한국인이 이슬람 문화권을 방문할 때 이슬람 남성들이 인사를 할 때 포옹하면서, 상대의 양 뺨에 키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된다면 당황해서 물러나거나, 어쩔 줄 몰라 어색한 상황을 연출할지도 모를 것이다. 또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보면 종종 선수들 간에 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행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친한 친구사이에서, 또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해서 안 되는 행위다.

이와 같은 신체 접촉이 문화 간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별에 따라, 지위에 따라, 또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한국에서 나이 가 더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용납되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깨를 두드리는 동작을 한다면 버릇없는 행동이 될 것이다. 필리핀이 접촉지향의 나라일지라도 남녀사이에 악수하는 행위는 여자에 의해 먼저 시작되어 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신체접촉의 행위는 상당히 민감한, 실수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언어적 행위다. 신체접촉은 성적인 메시지와 많은 연관성을 갖는다. 잘못된 신체접촉을 통해, 상대방을 오해하게 하는 성적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 문제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접촉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반드시 선행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일 것이다.

##### (5) 자세

신체가 만들어내는 자세와 자세의 의미는 문화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비격식

적 이면서 친근한 태도를 중요시 하는 문화에서 사람들은 앉을 때 손발을 쭉 뻗고, 서있을 때 몸을 구부린다. 하지만 더 격식을 따지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 동작들은 무례한 동작이다. 우리는 종종 미국 드라마에서, 친근한 직장 상사의 책상 앞에 앉아서 책상위에 발을 올려놓는 행동을 본다. 한국에서 그런 자세는 용납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세가 나타나는 상황을 Mehrabian(2007: 30)은 두 가지 차원의 틀 속에서 보았다. 첫째는 밀접성의 차원이다. 가까운 사이는 더 가까운 위치, 앞으로 몸을 기울임, 시선접촉, 더 직접적인 신체의 방향 등을 가정한다. 두 번째는 편안함이다.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대칭적인 신체자세 또는 수족의 위치보다는 비대칭적인 신체자세 또는 수족의 위치를 보여준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다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편안한 자세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불편한 자세를 취하며 굴복적인 태도를 보이며, 더 큰 친밀성에 대한 지속적인 선호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위협의 상황 속에서는 긴장한 자세를 보인다.

이처럼 자세 또한 문화적 정체성과 사람의 심리적 상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6) 냄새

현재 수많은 돈이 향수, 방향제, 탈취제, 구강청결제등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많은 냄새들 중에서 신체의 냄새는 냄새를 감지하는 상대방의 분위기 또는 냄새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마다 익숙한 냄새가 있지만 그 냄새가 타문화에서는 견디기 힘든 냄새가 될 수도 있으며 그 특이한 냄새가 그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신호하는 메시지로 이용될 수도 있다.

냄새는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기억을 자극하는 감각이다. 우리는 좋은 냄새라고 생각하는 것에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반대인 경우 강한 부정적 반응을 한다. 이러한 점이 서로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최윤희(1999: 94)는 “아랍인들에게 있어 좋은 몸 냄새는 상대방의 호감을 살뿐 더러 서로 관계를 맺는 방법이 된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남성들을 환자로 취급했고, 심지어 겨드랑이 냄새는 이들이 군 복무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 1.3 공간

‘Proxemics’ 라는 용어는 인간의 공간사용 행위에 대한 개념으로 Hall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의 이 개념은 Boas, Sapir, Bloomfield등 많은 언어학자의 견해를 기초로 해서 나왔다(김우룡 외 2004: 311). 사람들은 공간의 사용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로 무언의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무언의 메시지는 문화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간 활용의 개념이 다른 문화와의 만남은 그것이 결혼이나, 사업상의 만남, 다문화의 교육현장이든, 또한 그의 다른 유형의 어떤 만남이든,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려는 쪽과, 공간의 침범을 인식하지 못하는 쌍방사이에 공간 인식에 의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Hall(1966: 103-125)은 이러한 공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Fixed-Feature Space

Semifixed-Feature Space

Informal Space :

Intimate distance, Personal distance, Social distance, Public distance

- 고정형 공간(fixed-feature space)

이것은 개인 과 그룹의 활동을 조직하는 기본적인 방법들 중 하나다. 이것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움직일 때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물질재료의 표현과 숨겨진 내적인 디자인을 포함한다. 건물이 그러한 예이며 이런 건물의 모여지거나 또는 나누어지거나 하는 배열 또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집 내부의 방의 배열 또한 이 범주에 포함 된다.

- 준 고정형 공간(semifixed-feature space)

준 고정형이란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가구의 배치를 말한다. 한국에서 고정형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준 고정형의 특징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경우 용도에 따라, 미국에서 고정형의 성격을 갖는 벽을 움직여 사용한다. Hall(1966)은 캐나다의 한 병원의 실험을 통해 탁자의 구조와 탁자에서의 사람의 배치에 따라 앉은 사람들 간의 대화의 빈도수가 달라짐을 연구한 결과를 인용하며 준 고정형 공간과 사람들의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6명이 앉아있는 직사각형의 탁자에서, 짧은 길이 쪽에 각각 한 명씩 앉고, 긴 길이 쪽에 각각 두명이 앉을 때, 가장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짧은 길이 쪽에 앉은 사람들과 대각선으로 인접해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탁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준 고정형 공간과 사람들의 행동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비정형 공간(informal space)

비정형 공간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유지되는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류와 포유류는 자기 영역을 갖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람들 간의 거리를 다루는 일정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비정형 공간은 다시 4개의 거리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거리는 다시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로 나뉘어진다. 물리적 거리와 실제 인간 행위를 관계 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지만 여기에 주어진 거리의 기준은 미국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자료이지 범문화적 자료는 아니다.

- ① 친밀거리(intimate distance)

가까운 친밀거리(close phase) - 애정 행위 또는 레슬링을 한다거나, 상대를 편안하게 하거나, 보호할 때의 거리다. 육체적 접촉이 가장 많은 단계이다.

먼 친밀거리(far phase) (6-18인치, 21-46cm) - 머리, 넓적다리, 골반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거리다. 그러나 손이 상대방의 팔, 다리에 도달하거나, 잡을 수

있다. 이 거리에서는 작은 목소리 또는 속삭이는 소리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 냄새와 열기를 느낄 수 있다.

#### ② 사적거리(personal distance)

가까운 사적거리(1.5-2.5 feet, 45-75cm) - 이 거리에서는 상대방을 잡을 수 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생기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한 시각적 왜곡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눈을 통제하는 근육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먼 사적거리(2.5-4feet, 75-120cm) - 두 명의 사람이 손가락을 펴고 손을 뻗었을 때 서로의 손가락이 건드릴 수 있는 거리로 쉽게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올려 놓을 수 없는 거리다. 중간 정도의 목소리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신체의 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 ③ 공적거리(social distance)

가까운 공적거리(4-7feet, 120-210cm) - 이 거리에서 머리의 크기는 정상적으로 인식된다. 개인 간의 업무가 이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일상적인 사교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매우 일반적인 거리다.

먼 공적거리(7-12feet, 210-360cm) - 이 거리는 '내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물러서'라고 할 때의 거리다. 공적거리의 가장 끝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상 또는 사교적인 담화는 이 거리의 가까운 공적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의 성격보다 더 공식적인 성격을 갖는다.

#### ④ 대중거리(public distance)

가까운 대중거리(12-25feet, 360-750cm) - 이 거리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은 위협 받았을 때 피하거나,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거리는 도망치는 반응의 잠재적이며 퇴화한 형태이다. 목소리를 크게 하지만 완전히 큰 목소리는 사용하지는 않는다.

먼 대중거리(25feet 이상, 750cm 이상) - 이 거리는 중요한 공적인물 주변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거리다. 일반적인 대중거리는 공적인물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행사에서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다. 이 거리에서 목소



리와 그 외 모든 것이 과장되고, 증폭되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비언어 요소들이 몸짓과, 몸의 자세로 옮겨간다.

위의 정의는 Hall(1966)에 의한 것으로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Pease et al.(2004: 194-195)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친밀거리는 사람들이 이 거리를 자신의 자산인 것처럼 지키는 모든 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리다,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다. 여기에는 연인, 부모, 배우자, 아이들, 가까운 친구들, 친척, 애완동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15cm이하의 거리는 친근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동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
- ② 사적거리는 각테일 파티, 사무실 파티, 사회적 행사, 친근한 모임 등에서 다른 사람과 유지하는 거리다.
- ③ 공적거리는 낯선 사람과의 거리다. 집수리를 하는 배관공, 목수, 집배원, 동네 가게의 직원, 직장에 새로 온 직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등이 이 거리에 포함된다.
- ④ 대중거리는 우리가 큰 그룹의 사람들에게 연설할 때 우리가 서있기를 선택하는 거리다.

#### 1.4 신체특징

##### ● 신체적 외모

사람의 외모, 체형 또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전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체형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실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람의 외모, 체형에 대한 이해는 문화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뚱뚱한 사람을 보면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할 수 도 있다. 과거 60, 70년대의 한국에서 배가 나오고 뚱뚱한 남자는 풍채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은 사

람들이 살이 찌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다. 요즘 한국의 언론과 방송은 온통 ‘몸짱’, ‘얼짱’이라는 용어들의 홍수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모, 체형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지라도 성공, 인기, 사회적 능력, 심지어 행복도 매력적인 사람에게 더 쉽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매력적인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첫 만남 때, 사람들은 매력적인 외모의 사람에게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다(Klopf et al. 2007: 225). 예전 한 TV프로그램에서 매력적인 외모의 여성이 책을 떨어뜨렸을 때 도움을 받는 횟수와 평범한 외모의 여성이 책을 떨어뜨렸을 때 도움을 받는 횟수를 조사하는 실험이 있었다. 물론 매력적인 외모의 여성이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

#### ● 인공물

육체적인 외모와 더불어 의복과 장신구, 그외 개인과 연관되어진 인공물 들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로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옷, 선물, 재산, 보석, 여행용 가방에서 자동차, 심지어 머리를 하는 것, 그리고 화장까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의복을 하나의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상대방의 소리를 듣거나 보기도 전에 그 사람의 옷을 먼저 본다. 그것이 첫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가 입는 의복은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정의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의복의 중요성은 크다. 이러한 의복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착용자의 능력, 태도, 사회적 지위, 행위,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신의 등이다(Klopf et al. 2007: 227-228). 한국 속담에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의복을 착용한 사람이 의복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되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말일 것이다. 나는 학생들이 특정 상표의 신발이나 의류에 집착하는 경우를 본다. 이것 또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이며, 의도적 메시지 전달 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 어떤 크기의 아파트, 심지어 운동을 위해 어떤 종류의 운동 기구를 사용하느냐도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물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 의존적일 것이다.

## 1.5 유사언어

우리는 말을 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한다. 그 입혀진 색에 의해서 전달되는 말은 의미를 달리한다. 나의 11살 딸에게 무언가를 지적하고 알았지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네’를 들을 수 있다. 무겁게 가라앉은 ‘네’, 약간 고음의 즐거운 ‘네’, 길게 말하는 짜증의 ‘네’, 등등. 이처럼 우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 그 자체와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Mckay et al.(2009: 75-77)에 의하면, 유사언어(paralanguage)는 말의 음성적 요소로서 언어 내용 그 자체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리의 고저, 공명, 조음방법, 템포, 음의 크기, 리듬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사언어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기분 또는 태도 등을 배반하기도 한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소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낸다. 또한 우리가 의도적으로 강조를 위해 소리의 높이를 바꾸거나, 특별한 언어 한정자(verbal modifiers)<sup>27)</sup>를 포함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속뜻(metamessages)<sup>28)</sup>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Samovar et al.(1991: 205-06)는 유사언어(paralanguage)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 **Vocal Characterizers**

laughing, crying, yelling, moaning, whining, belching

### **Vocal Qualifiers**

Volume, pitch, rhythm, tempo, resonance, tone

### **Vocal Segregates**

"un / huh," "shh," "uh," "oooh," "mmmh," "hummm"

### **Vocal Rate**

27) 언어 한정자는 하나의 문장에 의미의 뉘앙스를 더하는 단어로 "certainly", "still", "again", "supposedly" 등이다. "Are you *still* here?" 의 속뜻은 "You shouldn't be here."이다.

28) 모든 진술은 두 가지 의미수준을 갖는데, 하나는 말 그 자체에 의한 기본적인 정보이고, 두 번째가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메시지이다. 이것이 속뜻이다

the rate at which people speak

(1) 음성 특징(vocal characterizers)은 말을 전달하는 언어와는 무관하게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 후 트림을 하는 것은 잘 먹었거나 많이 먹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흐느끼는 것은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음성 특징이 또한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트림이 또 다른 문화에서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

(2) 음성 조절(vocal qualifiers)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함께 발생하는 말 이외의 요소다. 즉 말하는 방법, 말씨를 나타낸다. 그것들은 전달되는 말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내는 소리 속에서 많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 상태, 사회 경제적 지위, 키, 몸무게, 성별, 나이, 지능, 인종, 종교적 배경, 교육 수준 등이다. 우리는 CNN과 같은 뉴스를 시청하면서 각각의 나라마다의 독특한 패턴의 억양, 단어 강세 등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여성의 소리가 높은 진동수를 갖고, 남성들은 낮은 진동수를 갖는다. 소리의 끝을 올리면서 말하면 의문문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화나 있을 때의 목소리는 아주 크고 떨리는 날카로운 소리, 또는 낮고 평이한 억양일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매우 부드럽게 이야기 한다. 그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는 좋은 예절과 교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음성 분리(vocal segregates)는 말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말이다. '허어', '음', 또는 잠시 멈춤 등이다. 형식성(formality), 순응(acceptance), 동의(assent), 불확실성(uncertainty)등을 시사하기 위해 쓰인다.

(4) 음성 속도(vocal rate)는 발화의 속도를 말한다. 유태인과 아랍인 그리고 이탈리아인들은 영국사람들 보다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속도의 불일치는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 2. 연구 문제

이 논문은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 또는 그 외의 거주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언어적 행위를 연구함으로써, 제주지역민의

일부인 그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4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시간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필리피노의 시간관념이 다층적이라는 것은 올바른 주장인가?

- 연구문제 2. 공간

공간인식에 있어서 그들이 공적거리에 있는 낯선 사람을 그들의 사적거리 또는 먼 친밀거리 안에서 허용하는가? 만약 허용한다면 그 경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끼는가?

- 연구문제 3. 신체접촉

신체접촉에 있어서 그들은 일반적인 주장처럼 접촉 지향적인가?

- 연구문제 4. 시선접촉

시선접촉에 있어 시선접촉을 유지하기보다는 시선접촉을 피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사실인가?

### 3.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필리피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정의가 타당한가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 하였다.

그러기 위해, 우선 설문항목을 결정하였는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 중 시간, 공간, 신체동작을 선택하였다. 다만 신체동작 중 몸짓언어는 이미 다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고, 얼굴표정은 단일 연구로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양이 방대하여 신체동작 중 신체접촉, 시선접촉의 항목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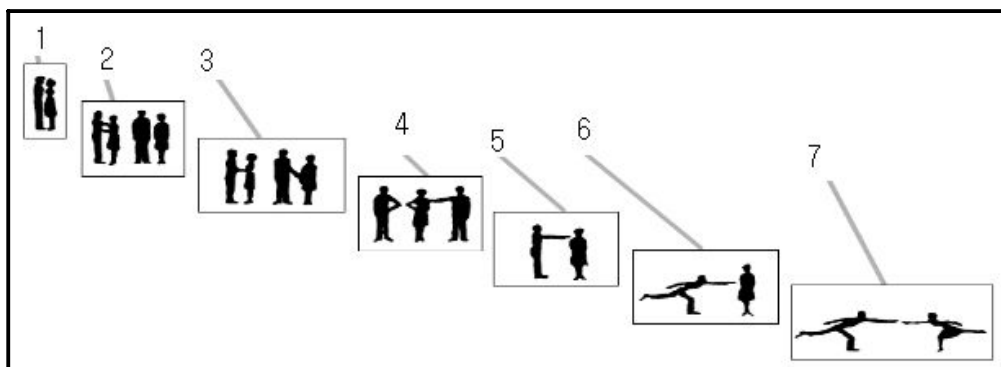
설문지에 사용된 질문 항목의 출처는 이 논문의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언급되어진 사례와 분류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또한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로 될 거라고 가정되는 임의적인 문항들도 또한 추가 하였다.

영역		항목수	참고 및 인용 출처
시간(chronemics)		13	Hall(1990)
공간(proxemics)		14	Harrigan et al.(2005) Hall(1966)
동작학 (kinesics)	신체접촉 (haptics)	21	Teven et al.(1998) Wilhelm et al.(2001)
	시선접촉 (eye contact)	4	Klopf et al.(2007)

<표 III-1> 설문항목의 분류와 참고 및 인용출처

대부분의 설문은 5점의 likert척도로 시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척도를 바꾸어 답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개인공간을 측정함에 있어 피설문자들이 실제 물리적 거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Harrigan et al.(2005)이 Hall(1966)의 표를 바탕으로 제작한 다음의 그림을 이용하였다.<sup>29)</sup>



<그림 III-1> Hall의 수치화된 거리를 그림으로 표시

설문은 제주지역의 ‘제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방문 후, 센터의 도움과 센터의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로 영어와 타갈로그 그리고 한국어가 가능하고, 제주에 약 10년간 거주한 직원을 통해 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당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동시에 주변의 지인들의 소개를 받아 개별 방문 후

29) Harrigan et al.이 거리 측정을 위해 사용한 그림은 실제 Hall(1966: 126)에 의해 제시되었던 표의 응용된 형태이다. 여기서 1과 2는 가까운 친밀거리와 먼 친밀거리이며, 3과 4는 가까운 사적거리와 먼 사적거리이며, 5와 6은 가까운 공적거리와 먼 공적거리이고, 7은 대중거리의 시작을 나타낸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이 이루어진 후 개별 접촉이 있었던 몇몇 필리피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본인이 느끼는 필리피노에 대한 생각을 말하도록 하였다.

설문대상은 총 53명이었으며, 그 중 38개의 설문은 제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로부터, 나머지는 개별접촉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 중 3명의 회수된 설문은 설문지의 대답내용이 완벽하지 않거나, 성실성 없는 대답으로 설문내용 대부분에서 설문 항목 간에 서로 배타적인 답을 내거나, 부부인 경우 똑같은 답을 낸 경우였다.

### 3. 설문 결과의 처리

자료는 엑셀을 이용하여 입력하였으며 설문항목은 시간에 대해 13개의 항목, 개인공간 14개의 항목, 신체접촉 21개 항목, 그리고 시선접촉 4개의 항목 등 총 52개이다.

우선 시간에 관한 질문 항목 모두는 5점 척도<sup>30)</sup>로서, 매 질문 항목마다 5개의 선택할 수 있는 대답을 주었다. 하나의 문항에서 각각의 대답에 가중치를 주어, 각각의 대답이 선택되어진 횟수에 가중치를 곱한 후 모든 값을 더해 총합을 구하고, 그 총합을 전체 인원수로 나누어 대답 중 어느 값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질문 항목이 가정과 반대되는 경우 척도의 값을 변환하여 입력하였다. 예를 들어 '1(매우 그렇다)'을 '5(매우 그렇지 않다)'로, '2(그렇다)'를 '4(그렇지 않다)'로 변환하였다.

#### 식 1) 평균성향

$$(1\text{번 선택 수} * 1) + (2\text{번 선택 수} * 2) + (3\text{번 선택 수} * 3) + (4\text{번 선택 수} * 4) + (5\text{번 선택 수} * 5)$$

---

전체 응답자 수

---

30) 1 = 매우 그렇다(very likely), 2 = 그렇다(likely), 3 = 유보(undecided), 4 = unlikely(그렇지 않다), 5 = very unlikely(매우 그렇지 않다)

또한, 주어진 질문 항목 중 관련이 있는 항목들의 평균성향을 모두 더하고 다시 관련 질문항목수로 나누어 보편적 성향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 2) 보편 성향

모든 관련 문항 평균성향 값의 합

---

관련 문항수

개인공간에 있어서는 일부 항목에서 직접 상황을 주고 어느 거리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어느 거리가 가장 빈도가 높게 선택되어지는 가를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상황과 동시에 특정 거리를 직접 제시해 선택하도록 하고, 3점 척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시간에서 이루어진 방식과 똑같이 처리되도록 하였다.

신체접촉과 시선접촉의 처리는 시간의 처리 방식과 같이 처리 하였다.

## 4. 설문 결과의 분석

우선, 소수를 제외한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남녀 구분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나아가서 이 설문이 알고자하는 것은 필리피노의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보편적 성향에 관한 것이므로 나이와 체류기간에 의한 분류에 의해 비언어적 행위를 분류하지 않았으며 다만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질문항목 중 비언어적 행위에 의한 실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배제하였다.

### 4.1 시간

시간은 총 13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은 Hall의 단층적시간과 다층적 시간을 구분하는 항목에서 왔으며 4번을 제외한 모



든 항목은 다층적 시간을 나타내고, 4번은 단층적 시간을 나타낸다. 다음의 단층적 시간 항목과 다층적 시간 항목들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I do many things at a time.
2. I consider time commitments an objective to be achieved, if possible.
3. I change plans more often and easily rather than adhere religiously to them.
4. I am concerned about not disturbing others; follow rules of privacy and consideration.
5. I am more concerned with those who are closely related(family, friends, close business associates) than with privacy.
6. I base promptness on the relationship in doing things.
7. I have a strong tendency to build lifetime relationship.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평균성향
1(p)	12	29	5	3	1	2.04
2(p)	19	25	5	1	0	1.76
3(p)	3	15	20	7	5	2.92
4(m)	2	0	4	21	23	4.26
5(p)	15	24	7	4	0	2.00
6(p)	12	22	10	5	1	2.22
7(p)	22	19	7	1	1	1.80
평균	12.14	19.14	8.28	6	4.42	보편성향 2.43
					(4번제외)	보편성향 2.12

<표 III-2> 설문 중 시간부분 1-7항목, 다층적 시간(p), 단층적 시간(m) 성향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유보),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표 III-2>의 7개 항목 중 1,2,5,6,7번 항목은 ‘2(그렇다)’에 가깝고, 3번 항목은 ‘3(유보)’에 가깝다. 4번 항목은 단층적 시간 항목으로 선택 값의 역을 입력하였다. 그 값이 ‘4(그렇지 않다)’에 가깝다는 것은 단층적 시간 특성이 있음을 나

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필리피노가 다층적 시간 특성이 있다고 전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층적 시간 특성이 또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4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보편적 성향이 ‘2(그렇다)’에 매우 근접하다는 것은 기존의 필리피노들을 다층적 시간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음은 시간약속과 시간약속에 상대방이 늦었을 때의 반응에 관한 것이다.

8. If someone who is going to visit me is a little late, it will be all right.
9. If someone who is going to visit me is thirty minutes or an hour late, it will still be ok.
10. If someone who is going to visit me is more than an hour late, it will still be ok.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평균성향
8	14	21	8	7	0	2.16
9	6	9	16	15	4	3.04
10	3	6	12	14	15	3.64

<표Ⅲ-3> 설문중 시간 부분 8-10항목, 상대방의 시간 약속 지키기에 대한 반응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유보),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8, 9, 10번 항목은 시간이 늦었을 때의 자신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늦어도 괜찮은 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 중 8번은 ‘상대방이 시간약속에 약간 늦었을 때’인데 평균성향이 2.16으로 상대가 늦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9번은 ‘30분이상이 늦은 경우’인데, 평균성향이 3.04로서 ‘3(유보)’에 거의 가깝다. 그리고 ‘괜찮지 않다’가 전체 50명중 19명(38%)으로서 30분정도의 시간이 늦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용인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시간 이상 늦는 경우’ 평균성향은 3.64로 ‘4(그렇지 않다)’에 가깝다. 전체 인원 중 과반수이상인 29명(58%)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인 21명(42%)이 ‘괜찮다’고 하거나 대답을 ‘유보’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에 있어 시간 엄수를 중요시하는 단층적 시간 성향 보

다는 다층적 시간 성향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에 있어 마지막 항목으로서 본인의 시간엄수에 대한 질문이다.

11. When I visit someone, I will usually be there (much earlier , a little earlier, on time, a little later, much later) than the appointed time

12. When I have a business meeting, I will usually be there (much earlier , a little earlier, on time, a little later, much later)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평균성향
11	9	16	19	6	0	<b>2.44</b>
12	15	16	17	1	1	<b>2.14</b>

<표 III-4> 설문 중 시간 부분 11-12항목, 자신의 시간 약속에 대한 원칙

1=매우 일찍(much earlier), 2=약간 일찍(a little earlier), 3=정시에(on time), 4=(약간 늦게(a little later), 5=매우 늦게(much later)

11번 과 12번 항목에서 사적인 만남이든, 업무와 관련된 만남이든 평균성향은 각각 2.44, 2.14로서 ‘2(약간 일찍)’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내용에 따르면, 필리피노들은 시간약속에 대해 상당히 유연하고,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 심지어 제시시간에 가는 것을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볼 때 위의 자료는 일반적인 이론에 위배된다. 하지만 개별적인 인터뷰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리피노의 시간관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자신과 약속한 상대방이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 이민자로서 새로 문화 환경 속에서 시간 약속에 대해 좀 더 철저하고자 하거나, 또는 본인에 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해 좀 더 나은 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 4.2 개인공간

1. When you line up, how far do you stand from the person right in front of you?

대답번호→	1	2	3	4	5	6	7
문항번호↓	가까운 친밀거리	먼 친밀거리	가까운 사적거리	먼 사적거리	가까운 공적거리	먼 공적거리	대중거리
1		21-46cm	45-75cm	75-120cm	120-210cm	210-360cm	
	3	8	13	9	13	4	0

<표 III-5> 줄을 설 때의 선호 거리

줄을 설 때의 선호거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 중 먼 사적거리를 설명하면 팔을 뻗어서 상대에게 닿거나, 닿을 듯한 거리가 먼 사적거리에 해당된다. 동양인으로서는 작은 체형의 성인인 내가 팔을 뻗고 손끝에서 어깨까지의 거리를 잴 때 약 75cm의 길이가 나온다. 선호거리를 보면 가까운 사적거리와 가까운 공적거리(각각 26%)가 가장 많이 선택 됐으며, 다음으로 먼 사적거리(18%)와 먼 친밀거리(16%)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적거리는 친근한 사람들 간의 거리다. 친밀거리 안에서 11명(22%) 그리고 친밀거리부터 매우 친근한 사이의 거리인 가까운 사적거리까지 총 인원은 24명(48%)으로서 거의 과반수의 사람이 줄을 서면서 가까이 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When you line up, if someone you don't know stands very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2 in the picture,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just O.K., not O.K.)
7. When you line up, if someone who you don't know stands very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3 in the picture,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just O.K., not O.K.)
8. When you line up, if someone who you don't know stands very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4 in the picture,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just O.K., not O.K.)

대답번호→ 문항번호↓	P.M. OK.	Just OK.	Not OK.		
6	1	30	19	먼	친밀거리
7	4	31	15	가까운	사적거리
8	10	35	5	먼	사적거리

<표 III-6> 줄을 설 때의 특정한 거리에서 편안함의 정도

P.M. OK. = 매우 괜찮다(pretty much okay), Just OK.=괜찮다(okay), Not OK= 괜찮지 않다(not okay).

질문 항목 6,7,그리고 8은 사람들이 '줄을 설 때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괜찮다고 느끼는가'를 직접 특정거리를 주고 대답하도록 하였다. 이 거리는 특히 친밀거리와 친한 관계의 사람들과 유지하는 거리인 가까운 사적거리와 먼 사적거리이다. 주어진 질문항목 중 가장 먼 거리인 먼 사적거리에서는 45명(90%)의 사람이 '괜찮다'는 답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사적거리에서는 35명(70%)이 '괜찮다'고 대답하였고, 마지막으로 먼 친밀거리에서는 31명(62%)이 '괜찮다'는 대답을 하였다. 먼 친밀거리는 21cm에서 상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46cm까지의 거리로서 매우 가까운 거리이다. <표 III-5>와 <표 III-6>에서 필리피노들이 줄을 설 때 의도적으로 먼 친밀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고 그 거리 간격으로 줄을 서는 것에 대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몇몇 필리피노와의 인터뷰에서 개인공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환경을 제공하는 지프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필리피노들이 그 상황을 편안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서 받아들인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필리피노들이 기존의 몇몇 주장들처럼 필리피노가 극단적으로 개인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허용하거나, 좋아한다기 보다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 When you are at work, talking with your colleague, how close do you usually stand from him/her?
3. When you are at work, talking with your new colleague, how close do you usually stand from him/her?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6	7
	가까운 친밀거리	먼 친밀거리	가까운 사적거리	먼 사적거리	가까운 공적거리	먼 공적거리	대중거리
		21-46cm	45-75cm	75-120cm	120-210cm	210-360cm	
2	3	13	15	11	5	3	0
3	4	7	16	6	12	5	0

<표 III-7> 직장 내에서 직원과의 거리 유지

공적거리는 낯선 사람과의 거리로서, 직장에 새로 들어온 동료 또한 이론에서 공적거리에 들어온다. 질문2에서 '일반 직장동료와의 거리'가 대부분 먼 사적거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먼 친밀거리와 어느 정도 겹쳐질 수 있는 가까운 사적거리까지의 범위에도 31명(62%)이 포함됐다.

다음으로 질문3의 '새로운 직장동료와의 거리'를 보면 33명(66%)이 먼 사적거리 안쪽에 있으며 심지어 27명(54%)이 가까운 사적거리 안쪽에 들어와 있다.

4. When you walk with your friend, how close in distance are you and your friend?
5. If you are married, when you walk with one of your relatives from your spouse who is of the same gender, How close in distance are you and he/she?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6	7
	가까운 친밀거리	먼 친밀거리	가까운 사적거리	먼 사적거리	가까운 공적거리	먼 공적거리	대중거리
		21-46cm	45-75cm	75-120cm	120-210cm	210-360cm	
4	11	17	15	3	3	1	0
5	6	22	8	9	4	1	0

<표 III-8> 길을 걸을 때의 유지거리

4번 문항은 '친구와 걸을 때의 유지 거리'로서, 친구와 걸을 때 28명(56%)이

친밀거리 안에서 함께 걷는다고 했으며, 43명(86%)이 가까운 사적거리 안에서 같이 걷는다고 하였다. 5번 문항은 ‘당신이 결혼했다면’이라는 제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답을 주었다. 4번 문항과 5번 문항의 차이로는 친구보다 배우자 쪽의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가 더 커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28명(56%)이 친밀거리 안에서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In a crowded bus or the subway like in the figure 2, do you feel very uncomfortable? (very likely, likely, undecided, unlikely, very unlikely)
10. In a crowded bus or the subway like in the figure 1, do you feel very uncomfortable? (very likely, likely, undecided, unlikely, very unlikely) , \* It is the distance that is important, not the direction they are facing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평균성향
9. 먼 친밀거리	3	18	11	17	1	2.9
10. 가까운 친밀거리	8	11	11	14	6	2.98

<표 III-9> 버스 안에 서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거리에 의한 불편함의 정도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유보),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질문 9와 질문 10에서 평균성향은 비슷하지만 가까운 친밀거리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먼 친밀거리에서 가까운 친밀거리로 질문대상이 바뀌었을 때 2번 선택이 줄고, 1번 선택이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인 반면 5번 선택이 느는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부 소수의 사람에게서 9번 항목과 10번 항목 사이의 거리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 어쨌든 버스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밀착되어진 상태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도 '불편하지 않게 생각한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11. When you are on the street, if someone comes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2 and asks for directions,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just O.K., not O.K.)

12. When you are on the street, if someone comes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3 and asks for directions,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just O.K., not O.K.)

대답번호→ 문항번호↓	P.M. OK.	Just OK.	Not OK.		
11	5	30	15		먼 친밀거리
12	10	33	7		가까운 사적거리

<표 III-10>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의 유지 거리에 대한 반응정도  
P.M. OK. = 매우 괜찮다(pretty much okay), Just OK.=괜찮다(okay), Not OK= 괜찮지 않다(not okay).

문항 11과 문항 12에서 ‘낯선 사람이 먼 친밀거리에서 길을 물을 때’ 35명(70%)이 괜찮다는 대답을 하였다. 먼 친밀거리는 우리가 팔을 90도의 각도로 겨드랑이에 팔꿈치 붙이고 손을 뻗을 때 손끝에서 팔꿈치의 거리를 최대 거리로 하는 거리다. 이 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길을 묻도록 허용하는 것은 필리피노의 개인공간이 작아지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가까운 사적거리에서는 무려 43명(86%)이 괜찮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13. When there is only one bench around you can sit on, if there were small room on it just for one more person, would you go for it? (very likely, likely, undecided, unlikely, very unlikely)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평균성향
13	0	15	23	8	4	3.02

<표 III-11> 오직 한 사람만이 더 앉을 수 있는 벤치에 앉으려고 할 것인가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유보),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단지 한 사람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벤치에 대한 앉으려는 시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평균성향은 3.02로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이 문항이 만약 벤치에 앉아야만 하는 자신의 육체적 상태가 전제되었을 때 ‘그렇다’는 답이 우세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13번 문항에서 이미 ‘그렇다’의 답이 15명(30%)에 달하고 23명(46%)이 ‘유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 4.3 신체접촉

신체접촉과 관련된 20개 항목의 질문은 필리피노를 접촉지향의 사람으로서 가정하여 이루어진 질문이며, 보편성향이 ‘3(유보)’에서 왼쪽영역(3보다 작은 값)일수록 그러한 가정이 맞다고 말할 수 있다.

질문 중 2, 4, 7, 8, 9, 11, 12, 13, 14, 15, 16번 질문 항목은 접촉지향과 반대되는 성향을 묻는 질문으로서 대답을 역 변환하여 입력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예를 들어 ‘1(매우 그렇다)’을 ‘5(매우 그렇지 않다)’로, 또는 ‘5(매우 그렇지 않다)’를 ‘1(매우 그렇다)’로 변환하였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평균성향 즉 보편성향이 구해지도록 하였다.

1. I generally like when people express their affection towards me in a physical way.
3. Touching other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my personality.
5. I enjoy touching others.
6. (I think) People shouldn't be uncomfortable about being touched.
10. I don't mind if I am hugged as a sign of friendship.
17. I'd be happy to give a neck/shoulder massage to a friend if they are feeling depressed.
18. I greet my close friends with a kiss.
19. I like being caressed in intimate situations
20. I like walking hand in hand or arm in arm with my close friend.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평균성향
1	3	17	12	10	8	3.06
3	0	10	17	16	7	3.40
5	0	9	14	15	12	3.60
6	0	9	20	18	3	3.30
10	8	21	12	5	4	2.52
17	9	24	9	7	1	2.34
18	3	18	13	11	5	2.94
19	0	13	22	11	4	3.12
20	8	18	10	11	3	2.66
<b>평균</b>	<b>3.44</b>	<b>15.44</b>	<b>14.33</b>	<b>11.55</b>	<b>5.22</b>	<b>보편성향 2.99</b>

<표 III-12> 신체접촉에 대한 보편적 성향, 접촉지향적 질문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유보),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접촉지향적 질문에서 3보다 큰 값을 보이는 질문항목 중 3,5,6번 질문항목은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이 중요한 당신의 성격의 일부인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접촉을 즐기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상대에 의한 신체접촉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이다. 다른 질문과 비교할 때 질문에서의 어휘 선택이 상대적으로 극단적일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1(매우 그렇다)’이라는 답의 갯수가 0이라는 사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19번 항목은 ‘성격 측면’의 질문으로서 대답에 있어 소극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1(매우 그렇다)’의 갯수가 0이고, 질문 항목 중 가장 많은 22명(44%)이 ‘3(유보)’을 답으로 선택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13명(26%)이 ‘2(그렇다)’를 답으로 선택 하였다.

나머지 5개의 질문항목을 보면 먼저 1번 질문항목은 ‘일반적으로 나에게 대한 상대의 신체적 애정표현 행위에 대해 좋아하는가’이다. 답은 3.06으로서 ‘3(유보)’에 매우 가깝다. 10번 질문항목 ‘우정의 표시로서 포옹’에 대해서는 29명(58%)이 포옹을 꺼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3(유보)’을 제외한 꺼려하는 경우는 9명(18%)이었다.

17번 항목 ‘우울한 친구에게 목 또는 어깨 마사지를 해 줄 수 있는가’의 질문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성향 2.34를 보이고 있다. 신체적 접촉이 친밀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번 항목 ‘친한 친구와 키스로 인사하는가’에서는

21명(42%)이 '1(매우 그렇다)' 또는 '2(그렇다)'를 답으로 선택했고, 유보의 경우는 13명(26%)이었다. 평균성향은 유보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20번 질문항목 '가까운 친구와 손을 잡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가'에서는 26명(52%)이 '1(매우 그렇다)' 또는 '2(그렇다)'를 답으로 선택했고, 10명(20%)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평균성향 2.66으로서 '2(그렇다)'와 '3(유보)'사이에 있으며, '3(유보)'에 좀 더 가까웠다.

위의 질문항목만을 볼 때 보편성향은 2.99로서 '3(유보)'에 매우 가깝다. 일반적으로 '우정의 표시로서의 포옹', '키스에 의한 인사', '손잡고 친구와 걷기' 등은 접촉지향적 행동이지만, 그 답이 '3(유보)'에 가깝다는 것은 필리피노가 부분적으로 접촉지향적 측면이 있지만, 모든 필리피노를 접촉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아무에게나 신체접촉의 행동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래의 질문들은 역으로 질문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불편한가', '싫어하는가' 등이다.

2. Being touched by others makes me uncomfortable.
4. I do not like touching others.
7. I would rather avoid shaking hands with strangers.
8. I get nervous when an acquaintance keeps holding my hand after a hand shake.
9. It would make me feel anxious if someone I had just met touched me on the wrist.
11. I feel uncomfortable when someone I don't know very well hugs me.
12. I dislike having to hug others.
13. When I see people hugging, it bothers me.
14. I feel disgusted when I see public displays of intimate affection.
15. I seldom put my arms around others,
16. I feel uncomfortable if I make physical contact with a stranger on the bus or subway.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평균성향
2	6	21	17	5	1	2.48
4	3	19	19	7	2	2.72
7	7	13	18	11	1	2.72
8	4	17	9	17	3	2.96
9	7	20	10	8	5	2.68
11	14	17	7	9	3	2.40
12	5	14	17	13	1	2.82
13	4	17	19	9	1	2.72
14	6	17	18	7	2	2.64
15	1	20	13	14	2	2.92
16	15	15	4	13	3	2.48
<b>평균</b>	<b>6.54</b>	<b>17.27</b>	<b>13.72</b>	<b>10.27</b>	<b>2.18</b>	<b>보편성향 2.68</b>

<표 III-13> 신체접촉에 보편적 성향, 비접촉지향적 질문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유보),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2번, 11번, 16번 질문 항목은 평균성향이 모두 2.5보다 작은 값으로서 접촉지향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경우이다. 각각의 문항을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한 신체 접촉이 불편한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포옹한다면 불편한가’, 그리고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과 신체접촉이 불편한가’이다. 이 질문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의 평균성향은 모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였다.

9번, 14번의 경우 평균성향이 2.5보다 크지만 남아있는 질문항목들 중 가장 작은 대략 2.6의 평균성향 값을 갖고 있다. 질문 문항 각각은 ‘처음 만난 사람이 내 손목을 만진다면 불안한가’ 그리고 ‘친밀한 애정행위의 장면이 혐오스러운가’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불편하지 않다’의 값은 27명(54%) 그리고 23명(46%)이었다.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으며, ‘불편함을 느낀다’는 각각 13명(26%) 그리고 9명(18%)이었다. ‘3(유보)’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불편하지 않다’가 많음을 볼 수 있었다.

4번, 7번, 13번의 질문 항목들은 평균성향이 2.72로서 같고 높은 유보율을 보이는 항목들이다. 문항들은 각각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체접촉을 좋아하지 않는다’, ‘낯선 사람과 악수 하는 것을 피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옹 하는 장면이 나를 난처하게 한다’이다. 높은 유보율을 보이지만, ‘괜찮다(그렇지

않다)’의 대답이 ‘괜찮지 않다(그렇다)’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괜찮지 않다(그렇다)’는 각각 9명(18%), 12명(24%) 그리고 10명(20%)인 반면에 ‘괜찮다(그렇지 않다)’는 각각 21명(42%), 20명(40%), 그리고 21명(42%)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평균성향을 가지고 있는 8번, 12, 15번 항목이 있다. 각각의 항목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악수를 하고 난 후 내 손을 계속 잡고 있을 때 나는 긴장한다’, ‘다른 사람을 포옹해야한다면 싫다’, 그리고 ‘나는 거의 다른 사람들에 팔을 걸치지 않는다’이다. 각각의 질문의 평균성향은 2.98, 2.82 그리고 2.92로서 ‘3(유보)’에 매우 근접해 있다.

대답번호→ 문항↓	1	2	3	4	5	평균성향
접촉지향 평균	3.44	15.44	14.33	11.55	5.22	보편성향 2.99
비접촉지향 평균	6.54	17.27	13.72	10.27	2.18	보편성향 2.68
전체평균	4.99	16.35	14.02	10.91	3.7	전체보편성향 2.83

<표 III-14> 신체접촉에 대한 보편적 성향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유보),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표 III-14>는 접촉지향의 평균과 비접촉지향의 평균값을 합쳐 전체적 보편성향을 구한 결과다. 전체평균에서 접촉지향을 의미하는 ‘1(매우 그렇다)’과 ‘2(그렇다)’의 합은 21.34(42.68%)이고, 이 대답들의 반대에 해당하는 ‘4(그렇지 않다)’와 ‘5(매우 그렇지 않다)’의 합은 14.61(29.22%)이다. 신체접촉에 있어 접촉지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과반을 넘지 않고 있고, 전체 보편성향이 ‘3(유보)’에 가깝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필리피노를 접촉지향이라고 보편화하고 행동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키스나, 포옹에 의한 표현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 행위에 대해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은 필리피노들이 한국인들 보다는 접촉 지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 4.4 시선접촉

1. When I talk with someone, I try to have as much eye contact as possible.
2. When someone keeps looking directly at me while talking with me, I feel uncomfortable.
3. If it is possible to look away from someone I talk with, I will do so.

대답번호→ 문항번호↓	1	2	3	4	5	평균성향
1	1	3	6	27	13	3.96
2	2	16	12	18	2	3.04
3	2	11	13	21	3	3.24
평균	1.66	10	10.33	22	6	보편성향 3.41

<표 III-15> 시선접촉 회피 경향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유보),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시선접촉에 있어 기존의 주장은 ‘필리피노들은 지속적인 시선접촉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이다. 그러므로 1번 문항의 경우 반대의 값이 입력되었다. 즉 ‘4(그렇지 않다)’와 ‘5(매우 그렇지 않다)’의 경우 이것은 ‘가능한 시선을 마주치려고 한다’이며 40명(80%)이 여기에 해당됐다. 1번 문항의 평균성향은 전체와 다르게 ‘4(그렇지 않다)’에 가까웠다. 2번 문항의 경우 평균성향은 ‘3(유보)’에 가까웠고 ‘경향이 있다’와 ‘없다’의 비율이 비슷했다. 3번 문항, ‘내가 이야기 하는 사람과 시선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할 것이다’라는 질문에서 ‘4(그렇지 않다)’와 ‘5(매우 그렇지 않다)’의 대답이 24명(48%)으로 과반수에 가까웠다. 또한 ‘1(매우 그렇다)’과 ‘2(그렇다)’의 대답인 13명(26%)과 비교할 때 거의 2배가 되고 있다. 보편성향을 볼 때 그 값은 ‘3(유보)’에 가깝지만 3.41로서 ‘4(그렇지 않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경계점 3.5에 근접해 있다. 그러므로 ‘필리피노들이 시선을 유지하기 보다 피하려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논문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기초로 필리피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 또한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필리피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타당한가를 확인하였다. 기존의 이론에 의하면 필리핀은 고맥락의 집단주의 국가이며, 다층적 시간 국가이며, 개인공간이 서구사회에 비해 좁으며, 접촉지향의 국가이며, 그리고 시선접촉을 유지하지 않는 경향을 갖는 국가이다. 하지만 설문연구의 결과 기존의 이론들이 완전히 타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

### ● 시간

시간			
	보편성향	기준	
다층적 시간 성향	2.43	1= 매우 그러하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다층적 시간 성향 (질문에서 단층적 시간 부분을 제거했을 때)	2.12		
상대가 시간약속 지 키기에 늦을 때	30분 이내	1=매우 괜찮다, 5. 매우 괜찮지 않다	
	30분 ~ 1시간		3.04
	1시간 이상		3.64
자신의 시간 약속 지 키기 기준	친밀한 관계	2.44	1=매우 일찍, 5. 매우 늦게
	공적인 관계	2.14	

<표 IV-1> 시간에 대한 성향

우선 시간의 개념에 있어 서구 사회는 일반적으로 단층적 시간문화이며, 동양의 경우 다층적 시간문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Hall(1959, 1966)의 구분에 따라 다층적시간의 항목들을 설문대상자들에게 질문하였고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질문 항목 중 단층적 시간의 항목을 추가 하

여 질문하였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단층적 시간의 특성 또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이 이루어질 때 다층적 시간 항목과는 별도로 다층적 시간 항목과 같은 수의 단층적 시간 항목을 설문했다더라면 색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설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존의 가정 '필리피노는 시간에 있어 유연하고 시간약속에 있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가 설문에서 '그렇지 않다'로 나왔다. 하지만 개별적 인터뷰에서 본인이 아닌 일반적인 필리피노들의 시간관념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필리피노들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더 나아가 설문에서 필리피노들은 상대방이 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괜찮다는 대답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그들의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말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엄격하게 다층적 시간 국가와 단층적 시간 국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 것은 한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성질 모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국가를 다층적 시간 문화다 혹은 단층적 시간 문화다라고 말하기보다 다층적 시간 성향이 강하다 혹은 단층적 시간 성향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다층적 시간 성향이 강한 국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단층적 시간 성향과 다층적 시간 성향이 여전히 혼재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예를 들어 약속을 정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정확한 시간의 개념 속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모임이 시작된 후 이루어지는 행동들은 다층적 시간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한국은 고맥락이며 다층적 시간의 국가이지만 단층적 시간의 특징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한국내 필리피노의 시간을 다루는 개념도 어느 정도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필리핀의 동서가 혼재된 문화의 영향 아래 그들은 우세한 다층적 시간성향과 열세의 단층적 시간 성향을 동시에 갖게 된지도 모른다. 그 결과 필리피노의 시간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다층적 시간이라고 판단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단층적 시간 특징을 갖고 있지만 다층적 시간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필리피노의 시간을 다루는 특징은 중동, 인도, 중국, 남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러시아 등의 특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필리피노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단층적 시간 특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양권에



속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 공간

공간-유지거리							
(L= 가장 큰 수, SL= 두 번째로 큰 수, TL= 세 번째로 큰 수)							
	가까운 친밀거리	먼 친밀거리	가까운 사적거리	먼 사적거리	가까운 공적거리	먼 공적거리	대중거리
		21-46cm	45-75cm	75-120cm	120-210cm	210-360cm	
줄서기의 유지거리	3	8	L=13	TL=9	L=13	4	0
직원과 거리유지	3	SL=13	L=15	TL=11	5	3	0
새 직원과 거리유지	4	TL=7	L=16	6	SL=12	5	0
친구와 길을 걸을 때 유지거리	TL=11	L=17	SL=15	3	3	1	0
배우자의 동성 친척과의 유지거리	6	L=22	TL=8	SL=9	4	1	0

<표 IV-2> 공간에 대한 성향 중 유지거리

공간-유지거리에 의한 관촬음의 정도					
대답번호→ 문항번호↓		매우 관촬다	관촬다	관촬지 않다	
거리에서 줄서기	먼 친밀거리	1	L=30	19	
	가까운 사적거리	4	L=31	15	
	먼 사적거리	10	L=35	5	
거리에서 길 묻기	먼 친밀거리	5	L=30	15	
	가까운 사적거리	10	L=33	7	

<표 IV-3> 공간에 대한 성향 중 유지거리에 의한 관촬음의 정도

공간-유지거리에 의한 불편함의 정도							
(L= 가장 큰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유보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성향
버스안 에 서있을 때	가까운 친밀거리	3	L=18	11	17	1	2.98
	먼 친밀거리	8	L=11	L=11	14	6	2.90

<표 IV-4> 공간에 대한 성향 중 유지거리에 의한 불편함의 정도

공간-한 사람이 더 앉을 수 있는 벤치에 대한 앉기 시도						
벤치	매우 그렇다	그렇다	유보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성향
	0	15	23	8	4	3.02

<표 IV-5> 공간에 대한 성향 중 벤치 테스트

개인공간에 관한 기존의 주장은 서구 사람들이 낯선 사람과 유지하는 거리는 동양의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필리피노들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실험하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필리피노들의 개인공간이 낯선 사람과 사이에서 Hall(1966)의 기준을 중심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공적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적거리 또는 친밀거리 안에 들어 올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확인 하였다.

첫째, 줄을 설 때의 선택하는 거리에서 과반수가 가까운 사적거리 안에 들어왔다. 더 나아가 줄을 설 때 먼 친밀거리와 가까운 사적거리에서의 팬츠움의 정도를 물었을 때 각각 62%, 70%로 팬츠하다는 대답을 하였다. 낯선 사람과의 거리유지에 있어 Hall(1966)의 기준 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장에서의 직원과의 거리유지에서 가까운 직원과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반면, 낯선 사람에 가까운 새로운 직원과는 그 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까운 사적거리까지 54%가, 먼 사적거리까지 66%가 그 유지거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가 공적거리에서 친밀거리 또는 사적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친밀한 사람들과 같이 걸을 때의 거리로서 특이한 점은 없었다. 넷째, 버스라는 좁은 공간에서 주어진 거리마다의 불편함의 정도를 측정했을 때 먼 친밀거리에서의 평균성향은 2.9, 가까운 친밀거리에서의 평균성향은 2.98로서 보편적으로 ‘불편해 한다’ 또는 ‘불편해 하지 않는다’를 말하기 어려웠다. 다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의 수는 각각 36%, 40%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낯선 사람이 길을 물을 때의 상황이다. 이 경우 먼 친밀거리에서 70%가 팬츠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것은 공적거리의 사람들의 상당수가 친밀거리까지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치 테스트는 평균성향이 3.02로 필리피노가 공간

의 개념에 있어 어떤 성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거리에 관한 설문문의 결론은 3.0에 가까운 평균성향을 보인 버스와 벤치테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공적거리에서의 범위가 사적거리 또는 친밀거리로 이동현상을 보였다. 필리피노의 개인 공간은 Hall에 의한 이론보다 범위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필리피노의 개인 간 유지거리의 범위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상대와 유지하는 거리로 판단할 때 Hall(1966)의 기준 또는 서구의 기준 보다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더 가깝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다. 한국 국토연구원의 2009년 국가도시정보에 따르면 특히 서울, 인천의 국가 제1도시 인구밀도는 OECD국가 중 1위다(1km<sup>2</sup> 당 1만 6700명). 이것은 미국 뉴욕의 8배이다(1km<sup>2</sup> 당 2050명). 개인 간의 유지거리를 결정하는 역사, 주변 환경, 기후, 집단주의 성향 등 수많은 요소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한 요소에 인구밀도 또한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로서 개인 간의 유지거리가 인구밀도가 작은 나라에 비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좁은 사적거리를 유지하도록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는 정도는 강요 되고 있으며 그러한 동안에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는 지도 모른다.

필리핀의 도시 인구밀도는 많은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다. 그러한 점이 필리피노의 개인 간의 유지거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북미국가와 대부분의 북유럽국가의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들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넓은 개인 간의 유지거리를 갖게 하는데 기여 했을 것이다.

제주도내의 필리피노의 개인 간의 유지거리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우처럼 서구의 개인 간의 유지거리 보다 더 적었다. 개인 간의 유지거리에 있어 필리핀은 동양권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 신체접촉

신 체 접 촉		
	보편성향	기준
접촉지향의 질문	2.99	1= 매우 그렇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비접촉지향의 질문(역환산값)	2.68	
접촉지향에 대한 전체보편성향	2.83	

<표 IV-6> 신체접촉에 대한 성향

다음은 신체접촉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질문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질문되었고, 동성 간의 신체접촉을 전제로 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성간의 신체 접촉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금기시된다. 기존의 알려진 대부분의 주장은 필리핀은 접촉지향의 사회라는 것이다. 앞에 언급된 'bedspacer' 그리고 'jeepney' 등의 예는 극단적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주장들은 이런 사실과 더불어 우정과 따뜻함의 표시로 상대의 무릎에 손을 얹거나, 어깨에 손을 놓거나, 걸어가면 손을 잡는 행위 등을 예로 필리핀을 신체접촉이 쉽게 일어나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언급되어진 것처럼 필리핀은 고맥락의 사회이다. 고맥락의 사회일수록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비언어적 행위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처럼 필리핀은 신체접촉행위에 있어서 서구의 신체접촉보다 그 강도와 빈번함이 클 수 있다는 전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제가 유효한지 확인하였다.

결과는 전체 20개 항목의 보편성향이 2.83으로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질문 방식에 따라 접촉지향인가라는 질문인 경우는 2.99에 가까운 값을 보였지만, 비접촉지향인가라는 질문에는 2.68(역으로 산출되어진 값)로서 접촉지향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전체 보편성향에서 접촉지향이라는 경우 40%에 가깝고,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14%에 가까웠다. 접촉지향이 2배 이상 많은 차이를 보였고 과반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촉지향의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보편성향을 볼 때 만약 필리피노들을 단순히 접촉지향이라고 일반화 한다면 그들과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 실수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더 넓은 개인공간을 원할수록 신체접촉의 빈도는 줄어든다.

고맥락의 국가일수록 신체접촉의 빈도가 많고 저맥락의 국가일수록 신체접촉의 빈도가 적다. 하지만 고맥락의 집단주의 국가라도 신체접촉이 빈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신체접촉을 많이 하는 문화는 중동, 유대, 동유럽, 지중해, 중남미 등이며 신체접촉을 많이 하지 않는 문화는 북유럽, 독일, 영국, 미국 등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신체접촉이 많지 않은 나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신체접촉 성향에 있어 제주도내의 필리피노는 접촉지향의 성향이 비접촉지향의 성향보다 우세하지만 보편성향이 어느 특정 지역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합적인 신체접촉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시선접촉

시 선 접 촉		
	보편성향	기준
시선접촉을 피하려는 경향	3.41	1= 매우 그러하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표 IV-7> 시선접촉에 대한 성향

마지막으로 시선접촉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주장은 필리피노들이 시선접촉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성향이 3.41로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필리피노가 가능하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시선을 유지 하려고 한다고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설문에서 상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그 반대의 경향보다 상당히 우세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앞에서 전제한 시선을 피하려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에 어려웠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직접적인 시선을 피한다. 라틴아메리카, 아랍국가들, 남부유럽이 가장 많은 시선을 유지하며 그다음으로 북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있다. 설문의 결과로 볼 때 제주도내 필리피노의 시선접촉 성향은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성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시간, 공간에 있어서 앞서 전제했던 필리피노의 성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었고 동양적인 성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반대의 성향이나 유보적인 성향의 숫자도 적지 않았

다. 신체접촉에 있어서는 전제했던 경향이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역으로 접촉지향의 경향이 없는가는 그 수가 작고 오히려 결정할 수 없다는 답이 30%에 가까웠다. 이것은 필리피노가 신체접촉에 있어 동서양의 혼재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선접촉으로서 시선접촉에 있어 필리피노가 시선접촉을 피한다는 것은 올바른 전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시선접촉 성향은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성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결과에서 필리피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일반화의 오류 유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필리피노들이 과거의 필리피노에 의해 대표되는 필리피노가 아니거나, 문화접촉현상에 의해 일부 필리피노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것이든 변화하고 그것은 문화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한 문화와 상관관계를 갖는 비언어적 행위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필리피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필리피노 개개인을 대한다면 실수를 할 개연성이 클 것이다.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문화와 그 문화와 상호연관성을 갖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설문을 진행하면서 제주시다문화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은 설문 외에 나머지 설문은 지인의 지인을 소개 받는 형태의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친구 또는 친족을 소개해 주었고 이러한 방식은 반복됐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들의 친밀한 친족 또는 친구 관계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누구의 소개로 왔다고 했을 때 거부감 없이 호의적으로 설문에 응해 주었다. 인터뷰가 있었던 경우 인터뷰에 성실히 응해 주었고, 대부분이 필요시 다시 방문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그들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결혼이민을 통해 한국에 온 경우였고, 몇몇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단기간 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진정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2. 제언

이 논문을 진행하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참고한 외국 자료들은 과거의 오래된 자료들이 많았으며, 많은 서적과 논문들이 참고하고 있는 자료들 또한 대부분 과거 오래된 자료였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한국의 역사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아서 참고할 수 있는 한국내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동양 국가에 대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계량화 된 자료들 또한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비교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의 발달로 쉽고 빠르게 문화교류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 간 그리고 문화 간 사람의 교류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에 확립된 특정 문화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문화의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조금씩 다문화 국가의 양상을 보이며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외의 다른 국가들로 마찬가지로.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올바른 다문화 정책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큰 사회적 비용을 가져올 것이다. 올바른 정책과 교육은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에 있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올바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타문화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대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서 문화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주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한국의 비언어적 지시행위를 이해하지 못해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인 시간, 공간, 신체접촉, 시선접촉을 이해하지 못해 직장의 동료들과 융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문화 가정에서 갈등의 원인은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부간에 서로에게 보내는 비언어적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심할 경우 이혼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문화 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상대 문화의 언어 구조와 사전적 의미뿐 만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있어야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듯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또한 그렇다. 앞으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시대를 반영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이 논문이 필리피노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Birdwhistell, R. L. (1970). *Kinesics and Context: Essays on Body Motion Communic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Ekman, P. & Friesen, W. V. (1969). *The Repertoire of Nonverbal Behavior: Categories, Origins, Usage, and Coding*. *Semiotica*, vol. 1, no. 1, pp. 49-98.
- Ekman, P. (2003). *Unmasking the Face*. Cambridge, MA.
- Hall, E. T. (1959). *The Silent Language*. Doubleday, New York.
- Hall, E. T. (1966). *The Hidden Dimension*. Doubleday, New York.
- Hall, E. T. & Hall, M. R. (1990).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Intercultural Press.
- Hofstede, G. (1984). *The Cultural Relativity of the Quality of Life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9, no. 3, pp. 389-398.
- Inman T. H., Ownby, A. C., Perrault, H. R., & Rhea, J. N. (1991). *Internationalizing the business communication curriculum*. *Business Education Forum*, vol. 46, no. 2, pp. 19-22.
- Klopf, D. W. & McCroskey, J. C. (2007).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ncounters*. Pearson Education Asia.
- Knapp, M. L. (1978).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second edi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Lustig, M. W. & Koester, J. (2003). *Intercultural Competence* (4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 Mckay, M., Davis, M., & Fanning, P. (2009), *Messages: The Communication Skills Book*. New Harbinger Publications.
- Mehrabian, A. (2007). *Nonverbal communication*. Transaction Publishers.
- Novinger, T. (2001).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A Practical Guide*.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 Pease, A. & Pease, B. (2004). *The Definitive Book of Body Language*. Pease International.
- Remland, M. S., Jones, T. S. & Brinkman, H. (1991). *Proxemics and Haptics Behavior*

*in Three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vol. 15, no. 4, pp. 215-232.

Rogers, E. M. & Steinfatt, T. M. (1999).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aveland Press, Inc.

Samovar, L. A. & Porter, R. E. (1991).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pp. 176-177.

Siegmán, A. W. & Feldstein, S. (1985). *Multichannel Integrations of Nonverbal Behavior,*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Teven, J. J. & McCroskey, J. C. (1998). *Measurement of Tolerance for Disagreement.*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15, p. 209-217.

Ting-Toomey, S. (1999). *Communicating across cultures.* A Division of Guilford Publication, Inc.

Wilhem, F. H. , Kochar, A. S. , Roth, W. T. & Gross, J. J. (2001). *Social Anxiety and Response to touch.* Biological Psychology, vol. 58, p. 182-202.

Woods, D. L. (2006). *The Philippines: a global studies handbook.* ABC-CLIO, Inc.

Zastrow, C. & Kirst-Ashman, K. K. (2007).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Thomson Learning Inc.

Roces, A. & Roces, G. (2005). *필리핀.* (이은주 역). 도서출판 휘슬러 (원전은 2005에 출판).

김영순 (2000). 한국인의 손동작의 의미와 화용. 한국어 의미학 vol. 6, pp. 27-47.

김우룡 · 장소원 (200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주)나남출판.

김은경 (2008). 영어권 화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 신체언어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박명석 (1980). 문화권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 vol. 6, pp. 63-79.

변명섭 (1999). 문화 간 의사소통: 교수내용과 방법. 언어학연구 vol. 4, pp. 77-98. 제주 언어학회.

왕례량 (2004). 한국인과 중국인의 비언어적 의사표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기석 (2008). *English Policies in Southeast Asia: Hong Kong,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언어연구, vol. 24, no. 3, pp. 607-628.

이노미 (2006). 문화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인지능력 평가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과 아시아 지역 “손짓언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최윤희 (1999).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추계자 (1998). 비언어적 요소인 한·독 신체언어 기호의 비교분석. 독일어문학, vol. 7, pp. 93-118.

\_\_\_\_ (2001).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공간, 시간, 침묵. 부산대학교 人文論叢, vol. 57, pp. 89-107.

## 인터넷 검색

Bob, Mindano (2008). "Personal space, <Live in the Philippines>". <<http://liveinthephilippines.com/content/2008/02/personal-space>>. 2011. 2. 24. 검색.

BodyLanguageExpert. "Understanding Hand Gestures". <<http://www.bodylanguageexpert.co.uk/understanding-hand-gestures.html>>. 2011. 3. 20. 검색.

Geert Hofstede-itim. "Cultural Dimensions". <<http://www.geert-hofstede.com>>. 2011. 3. 3. 검색.

Paul Ekman Group LLC. "Truth about 'Lie to me'". <<http://www.paulekman.com/news/recentarticles/>>. 2011. 3. 14. 검색.

Philippine Department of Tourism-Korea. “필리핀 소개”. <[http://www.7107.co.kr/about\\_philippines.asp](http://www.7107.co.kr/about_philippines.asp)>. 2011. 2. 23. 검색.

정준영 (2006. 09. 27. 기사), “한국인 시간개념 없다고? 뒤집어보면 강점!”.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http://www.nocutnews.co.kr)>. 2011. 3. 5. 검색.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ju.go.kr/>>. 2011. 3. 1. 검색.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2011. 10. 1. 검색.

## Questionnaire

This questionnaire is part of a master's thesis on nonverbal behaviors of Filipinos living in Jeju.

**A. Gender** (male, female)

**B. Age** ( )

**C. How long have you stayed in Korea?** ( )

**D. Time**

*Please use the following table to indicate degree to which you are likely to do each action given.*

<b>very likely=1</b>	<b>likely=2</b>	<b>undecided=3</b>	<b>unlikely=4</b>	<b>very unlikely=5</b>
----------------------	-----------------	--------------------	-------------------	------------------------

('I' means you)

1. \_\_\_\_\_ I do many things at a time.
2. \_\_\_\_\_ I consider time commitments an objective to be achieved, if possible.
3. \_\_\_\_\_ I change plans more often and easily rather than adhere religiously to them.
4. \_\_\_\_\_ I am concerned about not disturbing others; follow rules of privacy and consideration.
5. \_\_\_\_\_ I am more concerned with those who are closely related(family, friends, close business associates) than with privacy.
6. \_\_\_\_\_ I base promptness on the relationship in doing things.
7. \_\_\_\_\_ I have a strong tendency to build lifetime relationship.
8. \_\_\_\_\_ If someone who is going to visit me is a little late, it will be all right.
9. \_\_\_\_\_ If someone who is going to visit me is thirty minutes or 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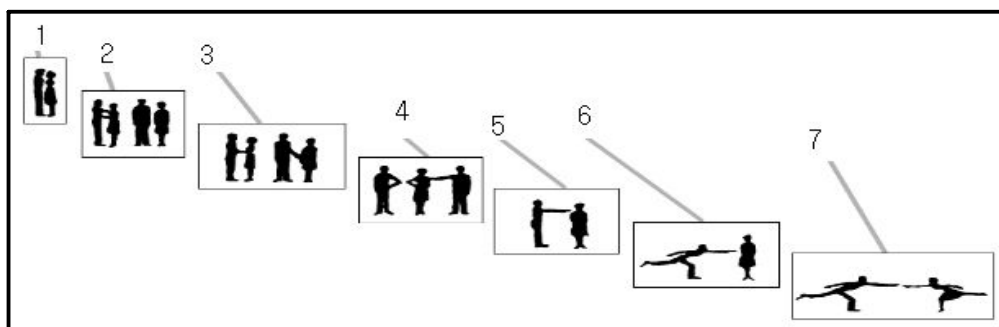
hour late, it will still be ok.

10. \_\_\_\_\_ If someone who is going to visit me is more than an hour late, it will still be ok.

*From here, choose one of the given choices in the parenthesis for each question and put a circle on it.*

11. When I visit someone, I will usually be there (much earlier , a little earlier, on time, a little later, much later) than the appointed time
12. When I have a business meeting, I will usually be there (much earlier , a little earlier, on time, a little later, much later)
13. I have been misunderstood or made mistakes due to the concept of time I have since I was in Korea. (more than several times, several times, a few times, never)

### E. Personal Space



The above picture is to help you to tell how close in distance you are to the other person around you. When you have to tell the distance you guess , please use the picture and select the number of the figure that matches your thoughts best. When you see the picture, it is the distance between the waist of one person and the waist of the other person that you have to take a careful look at.

In figure 2, the difference between one pair of people and the other pair is the directions in which they look. The same goes for the figure 4. So, you only have to think about the distance between two people close together.

1. \_\_\_\_\_ When you line up, how far do you stand from the person right in front of you?
2. \_\_\_\_\_ When you are at work, talking with your colleague, how close do you usually stand from him/her?
3. \_\_\_\_\_ When you are at work, talking with your new colleague, how close do you usually stand from him/her?
4. \_\_\_\_\_ When you walk with your friend, how close in distance are you and your friend?
5. \_\_\_\_\_ If you are married, when you walk with one of your relatives from your spouse who is of the same gender, How close in distance are you and he/she?

*From here, choose one of the given choices in the parenthesis for each question and put a circle on it.*

6. When you line up, if someone you don't know stands very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2 in the picture,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 just O.K., not O.K.)
7. When you line up, if someone who you don't know stands very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3 in the picture,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just O.K., not O.K.)
8. When you line up, if someone who you don't know stands very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4 in the picture,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just O.K., not O.K.)
9. In a crowded bus or the subway like in the figure 2, do you feel very

uncomfortable? (very likely, likely, undecided, unlikely, very unlikely)

10. In a crowded bus or the subway like in the figure 1, do you feel very uncomfortable? (very likely, likely, undecided, unlikely, very unlikely) ,

\* It is the distance that is important, not the direction they are facing

11. When you are on the street, if someone comes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2 and asks for directions,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just O.K., not O.K.)

12. When you are on the street, if someone comes close to you like in the figure 3 and asks for directions, is it O.K. for you? (pretty much O.K., just O.K., not O.K.)

13. When there is only one bench around you can sit on, if there were small room on it just for one more person, would you go for it? (very likely, likely, undecided, unlikely, very unlikely)

14. Have you been misunderstood or made mistakes due to the physical distances you keep from Koreans since you were in Korea. (more than several times, several times, a few times, never)

### 3. Touch

*Please use the following table to indicate degree to which you are likely to do each action given.*

<b>very likely=1</b> <b>likely=2</b> <b>undecided=3</b> <b>unlikely=4</b> <b>very unlikely=5</b>
--------------------------------------------------------------------------------------------------

('I' means you.)

1. \_\_\_\_\_ I generally like when people express their affection towards me in a physical way.

2. \_\_\_\_\_ Being touched by others makes me uncomfortable.

3. \_\_\_\_\_ Touching other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my personality.

4. \_\_\_\_\_ I do not like touching others.

5. \_\_\_\_\_ I enjoy touching others.
6. \_\_\_\_\_ People shouldn't be uncomfortable about being touched.
7. \_\_\_\_\_ I would rather avoid shaking hands with strangers.
8. \_\_\_\_\_ I get nervous when an acquaintance keeps holding my hand after a hand shake.
9. \_\_\_\_\_ It would make me feel anxious if someone I had just met touched me on the wrist.
10. \_\_\_\_\_ I don't mind if I am hugged as a sign of friendship.
11. \_\_\_\_\_ I feel uncomfortable when someone I don't know very well hugs me.
12. \_\_\_\_\_ I dislike having to hug others.
13. \_\_\_\_\_ When I see people hugging, it bothers me.
14. \_\_\_\_\_ I feel disgusted when I see public displays of intimate affection.
15. \_\_\_\_\_ I seldom put my arms around others,
16. \_\_\_\_\_ I feel uncomfortable if I make physical contact with a stranger on the bus or subway.
17. \_\_\_\_\_ I'd be happy to give a neck/shoulder massage to a friend if they are feeling depressed.
18. \_\_\_\_\_ I greet my close friends with a kiss.
19. \_\_\_\_\_ I like being caressed in intimate situations
20. \_\_\_\_\_ I like walking hand in hand or arm in arm with my close friend.

*From here, choose one of the given choices in the parenthesis for each question and put a circle on it.*

21. I have been misunderstood or made mistakes due to the concept of touch I have since I was in Korea. (more than several times, several



times, a few times, never)

#### 4. Eye contact

*Please use the following table to indicate degree to which you are likely to do each action given.*

<b>very likely=1</b>	<b>likely=2</b>	<b>undecided=3</b>	<b>unlikely=4</b>	<b>very unlikely=5</b>
----------------------	-----------------	--------------------	-------------------	------------------------

(‘I’ means you.)

22. \_\_\_\_\_ When I talk with someone, I try to have as much eye contact as possible.
23. \_\_\_\_\_ When someone keeps looking directly at me while talking with me, I feel uncomfortable.
24. \_\_\_\_\_ If it is possible to look away from someone I talk with, I will do so.

*From here, choose one of the given choices in the parenthesis for each question and put a circle on it.*

25. I have been misunderstood or made mistakes due to the concept of eye contact I have since I was in Korea. (more than several times, several times, a few times, never))

-the end of the questionnaire-

I am really thankful for your help.



## ABSTRACT

### Philippine Nonverbal Communication

– Focused on Chronemics, Proxemics, Haptics, and Eye-contact –

Young-Min Lee

Department of th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Prof. Myung-Sup Byun

Most people generally tend to consider communication behaviors as using a language that two or more parties involved in a conversation can use. However, communication is more than sending, receiving and understanding messages by spoken or written languages. When there are a sender and a recipient participating in a conversation, a message the sender intends to deliver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by the recipient due to several reasons despite the fact that the denotative message is not changed at all.

Futhermore, the message can be communicated nonverbally without any words being spoken or written. As earlier studies show, communication depends much more on nonverbal behaviors than verbal behaviors. Nonverbal behaviors depends on cultures as much as languages do. These are the reasons why we have to study nonverbal behaviors along with the cultures to which the nonverbal behaviors belong. If we don't do

so, we are more likely not to fully understand what a message sender from a different culture or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is trying to say whether it is verbal or nonverbal.

We live in Asia. In Asia, while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can be categorized into being so oriental, there are other countries that can be categorized into a mixed category of being oriental and western. Most of these countries were once colonized by western countries. One of the countries is the Philippines that has the second most population among southeastern Asian immigrants in Korea. What is interesting about the Philippines is that it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able to speak English of all the Asian countries and is the third largest English speaking country in the world. Being able to speak English can mean that Filipinos can easily get in contact with English speaking cultures.

Languages are correlated with cultures. We can fully understand communication behaviors of particular cultures through understanding their cultures. This thesis here attemp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established theories on Philippine nonverbal behaviors. The Philippines is an English speaking country and was once colonized by the United States longest. As a result, we might guess that Filipinos can show mixed behaviors of western cultures and oriental cultures. So, this thesis also checked the assump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several nonverbal communication behaviors of Filipinos except gestures and below is the result of it.

Firstly, in chronemics, and proxemics, the survey shows that established theories on them are valid. However, In haptics, and eye-contact, it shows that previously studied theories are not completely valid. In the way Filipinos handle time, we can say they are polychronic people. However, The result of one of the asked items, chosen from the

monochronic tendency table, shows that while they are polychronic, they could have the time-related behaviors of monochronic people. In sum, they are flexible handling time and polychronic but we cannot affirm they don't have monochronic attributes at all.

Secondly, in personal space, the distances they keep between people are shorter than the distances suggested by Hall. In other words, the distances Filipinos keep from strangers in social situations are overlapped with the distances that Hall thought people keep from personally related people. So,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ir personal space bubbles are smaller than Hall's personal bubbles or their personal space distances are shorter than the personal space distances suggested by Hall.

Thirdly, speaking of haptics, generally accepted theories about Philippine touching behaviors are not valid. However, they show those behaviors such as kissing, hugging not much seen between the same genders in most of asian cultures, but western cultures, which doesn't necessarily mean they are touch-oriented. That is because that touching behaviors can happen in many other ways.

Lastly, it is a generally known fact that Filipinos try to avoid direct eye-contacts. However, in this questionnaire survey, it didn't turn out to be right. When I interviewed them, the fact was confirmed again that they don't try to avoid eye contacts.

In conclusion, in chronemics and proxemics, they are what they are believed to be, but in haptics and eye-contact, they are not. However, although they show the polychronic and touch-oriented tendencies, the numbers of Filipinos showing the opposite tendencies or holding an undecided stance are not too small to ignore. Although there is little doubt that cultural norms can influence nonverbal behaviors, we cannot simply say that they are from a specific culture, so they would act accordingly.

## 감사의 글

이 논문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신 변명섭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온화하시면서 낭만적이시지만 가르침에 있어 명쾌한 논리로 지도해주셨고 그것은 이 논문과 함께 제가 대학원 과정을 마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시작했지만 대학원 생활이 힘든 시간이었기보다는 내 인생의 행복했던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즐거웠고 그 배움의 과정에 함께 했던 허성심, 정연숙, 이미정, 오영수, 강희선, 김재현, 박신동, 박정순, 오사랑, 섭문정, 송종도, 고경희, 오경보 선생님 모두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조언으로 부족한 많은 부분이 교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기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로는 엄격하지만, 좋은 말씀들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나아가 이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고경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소중한 나의 아내와 딸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